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석사 학위논문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가족사례관리 효과성 분석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Needs of Single-Parent Family
and the Effectiveness of Family Case Work
: Focused on Recipients of Family Empowerment Service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이수정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가족사례관리 효과성 분석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이수정

이수정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 혜 립 (인)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 1. 한부모가족 4
 - 1) 한부모가족 정의 4
 - 2) 한부모가족 실태 4
 - 3) 한부모가족 특성 5
- 2. 사례관리 7
 - 1) 사례관리 개념 및 실태 7
 - 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가족센터 7
 - 3) 가족사례관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8
- 3.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 10
 - 1) 생리적 욕구 12
 - 2) 안전에 대한 욕구 12
 - 3) 소속감과 애정 욕구 12
 - 4) 자존감의 욕구 12
 - 5) 인지적 욕구 13
 - 6) 심미적 욕구 13
 - 7) 자아실현 욕구 13
 - 8) 자기초월 욕구 13
- 4. 자기효능감 14
- 5. 가족기능 15
- 6. 선행연구 고찰 16

Ⅲ. 연구방법	19
1. 혼합연구방법의 이해	19
1) 혼합연구방법의 개념	19
2) 혼합연구방법의 특성	20
3) 혼합연구방법의 설계 모형 : Creswell	20
2. 연구 절차	22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4
1) 연구 참여자	24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4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7
1) 자료수집	27
2) 자료의 기록과 분석	27
Ⅳ. 연구 결과	29
1. 한부모가족의 욕구	29
1) 생리적욕구	32
2) 안전에 대한 욕구	41
3) 소속감과 애정욕구	48
4) 자존감의 욕구	55
5) 인지적 욕구	58
6) 심미적 욕구	58
7) 자아실현 욕구	58
8) 자기초월 욕구	62
2. 사례관리 효과성	65
1) 사례관리 개입	65
2) 자기효능감	67
3) 가족기능	68
Ⅴ. 결론 및 제언	70
1. 결론	70
2. 제언	73
참고문헌	74
부록	81
ABSTRACT	91

표 목 차

[표-1] 한부모가구 수 및 전체가구수 대비 비율	4
[표-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9
[표-3] 혼합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	19
[표-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5] 연구 참여자의 한부모 관련 특성	26
[표-6] 분석영역별 코딩 현황	28
[표-7] 욕구단계 분류 기준	30
[표-8] 한부모가족의 욕구 범주화	31
[표-9] 생리적욕구 범주화	32
[표-10] 안전에 대한 욕구 범주화	41
[표-11] 소속감과 애정욕구 범주화	48
[표-12] 자존감의 욕구 범주화	55
[표-13] 자아실현 욕구 범주화	58
[표-14] 자기초월 욕구 범주화	62
[표-15] 연구 참여자의 사례관리 개입 결과	65
[표-16] 연구 참여자의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	66
[표-17]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67
[표-18]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비교 :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68
[표-19]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68
[표-20]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비교 :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69

그 립 목 차

[그림-1]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5
[그림-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초기 진행 구성	9
[그림-3]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과정	10
[그림-4] Maslow의 욕구 8단계 피라미드	11
[그림-5] 혼합연구 : 수렴적 설계 모형	21
[그림-6] 혼합연구 : 설명적 설계 모형	21
[그림-7] 혼합연구 : 탐색적 설계 모형	21
[그림-8] 혼합연구 수행 과정	22
[그림-9] 자기효능감 사정·사후점수 평균변화	67
[그림-10]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평균변화	68

국 문 초 록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이 수 정
지도교수 정 민 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 가운데 하나인 한부모가족은 1990년부터 30년간 2.3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는 학교적응력이나 독립성 등의 장점을 통하여 생활에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인 자녀양육과 근로활동을 부 또는 모가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역할부담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적 실태만을 살펴보았을 뿐 실제 한부모가족이 호소하는 욕구에 관련된 자료수집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가족사례관리 대상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호소하는 욕구 및 사례관리 효과성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사회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 제공 및 한부모가족 정책의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욕구는 어떠한가? 사례관리 개입 효과성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U시 N구 가족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사례관리 대상자 총 156가정 중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3가정을 선별하였다. 이후 혼합연구방법 중 탐색적 순차설계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대상자가 호소한 욕구를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또한, 사례관리 개입 내역, 전/후의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들이 호소한 욕구의 87.5%는 결핍욕구(생리적, 안전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 자존감)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욕구(인지적, 심미적, 자아실현, 자기초월)는 12.5%로 그나마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소득보장,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 결핍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개입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경제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경력 단절 여성 대상 경력 있기 개념의 자활근로 영역의 다양화가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및

위라벨을 강조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광범위한 차원의 정책적 개선 및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촉구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개입은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사례관리가 한부모가족이 형성되는 초기지원 발판으로 작동하여 이들이 자발적 취약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관리사는 한부모가족에게 외적(물적) 역량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해결과 동시에 내적 역량강화를 함께 이끌어내어 자아실현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들의 대표적 호소욕구인 경제 및 근로활동은 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넷째, 우리 사회에 이혼과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가 대두된지 약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한부모 스스로의 위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지속적인 홍보, 감수성 증진 교육 등 적극적인 정책적 반영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수집하기 어려웠던 한부모가족의 실제 호소욕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간의 라포형성을 통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인터뷰 및 접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을 소개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혼합연구 설계를 통하여 가족사례관리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한부모가족, Maslow, 가족센터,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 발달, 죽음의 과정까지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1차적 집단이다. 가족이라는 집합체는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지고 인간은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익히고, 타인과 관계하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가족은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조합을 넘어 상호의존적 역동적 집단으로써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역, 계층, 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은 고정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 형태와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 대비 비율이 1990년대 10년간 7.4%~7.8%의 수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7.9%~8.6%로 증가폭이 다소 높아졌으며, 2010년대에는 9.2%~10.8%로 지난 30년간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2.3배 증가하였다(박종서 외, 2020).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역할 과중이나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내·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지만 모든 한부모가족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니다. 가족이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자원이나 강점을 활용하여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다(박진영, 2000). 또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양상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적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1; 정혜경, 2002; Lisbeth, 2003; 김희정, 2003).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가 양부모가족 자녀에 비하여 문제해결 기능이 더 우월함을 지적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최현숙, 2004).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자녀양육 문제, 가족기능 변화, 남녀 역할 재조정, 모·부자의 복지,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 관계, 대인관계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 가진 문제들은 한부모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부모가족 자녀세대인 청소년의 비행 및 이탈, 빈곤 및 빈곤의 대물림 등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최영진, 2021).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 차원의 사회적 관심을 통한 사회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복지급여, 취업지원, 국민주택 임대 및 일정비율 우선 분양, 복지자금의 대여, 자녀학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 보장되고 있다(최영진, 2021).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생계·의료·교육·주거·해산·자활·장제급여의 7개 급여유형이 있고, 사회보험에서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제도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한정원,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은 경제와 주거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한부모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기반으로 한부모가족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과 욕구에 대한 대책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단지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다(김연우, 2013). 또한 실제 한부모가족이 호소하는 욕구에 관한 자료수집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부모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식적인 기초통계자료를 얻는 것에 있어 큰 한계점을 가진다.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적공간이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로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의·식·주 생활을 포함하여 규율 및 교육, 약자에 대한 보호, 도덕성의 기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족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운, 박연숙, 전미경, 2019).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가족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과정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다양한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점의 한부모가족은 수혜를 받는 대상이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박정운, 2007). 하지만 가족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유형 중 하나로 인정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가족사례관리 대상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호소한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사회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 제공 및 한부모가족 정책의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의 욕구는 어떠한가?

2) 사례관리 개입 및 효과성은 어떠한가?

2-1) 사례관리 개입은 어떠한가?

2-2) 사례관리 개입 전후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2-3) 사례관리 개입 전후 가족기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사별, 이혼, 유기, 미혼자 발생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한부모가족을 ‘single parent family’라고 표기하며 혼자서 한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를 한부모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Nieuwenhios & Maldonad, 2018). 과거 한부모가족을 편부모가족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편(偏)’이라는 단어가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가족성상담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보편화 되었다.

한부모가족 중에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 양육자가 모이면 ‘모자(母子)가족’, 주 양육자가 부이면 ‘부자(父子)가구’라고 칭하며 보편적인 가족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장혜경, 김영란, 2001; 문성희, 이대균, 2011).

2) 한부모가족 실태

인구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구는 2005년 1,370천 가구에서 2020년 1,533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수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8.6%에서 2014년 10.5%로 상승하였다가 1인가구 증가추세로 인한 가구 수 확장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가구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모자가족은 약 75%, 부자가족은 약 25%의 비율을 나타낸다(통계청, 2020).

[표-1] 한부모가구 수 및 전체가구 수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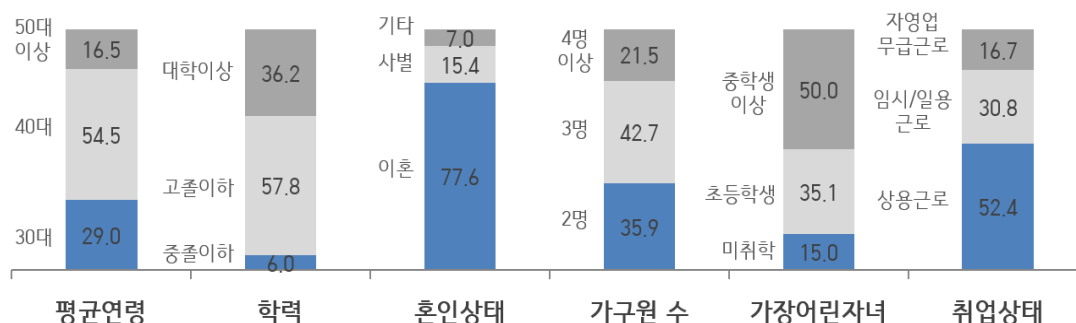
(단위:천가구,%)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한부모가구	889	960	1,124	1,370	1,594	2,060	2,085
한부모비율	7.8	7.4	7.9	8.6	9.2	10.8	10.3

출처 : 통계청(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5~2015) 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3.1세, 학력은 고졸학력이 57.8%, 대학이상이 36.2%였으며,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0%, 별거 2.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3명이 42.7%로 가장 많았고 2명 35.9%, 4명 16.1%, 5명 이상 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은 미취학인 경우가 15.0%, 초등학생 35.1%, 중학생 이상 연령인 경우가 50.0%로 과반수를 넘었다. 취업상태인 한부모가족은 84.2%로 15-64세 이상 고용률 66.6% 및 40대 전체 고용률 79.0%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불구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월평균 소득은 월 219.6만원수준으로 2018년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평균 389.0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56.5%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종사상 지위 역시 상용 근로자 52.4%, 임시 및 일용근로자 30.8%,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16.7% 수준으로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불안정한 고용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법정한부모 등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46.0%로 절반에 가까운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그림-1]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 한부모가족 특성

(1) 경제적 측면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 및 사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김경애, 1999; 김영주·유병선, 2010; 손서희, 2013; 조희선·전보영, 2013; 남궁성녀, 2014). 특히 모자가족의 경우 부자가족에 비해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결혼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이다. 모자가족의 주 양육자가 홀로 자녀돌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장환경마저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것은 여성 한부모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손서희, 2013).

(2) 자녀양육적 측면

부와 모가 함께하던 자녀 양육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부담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모두에 있어 매우 크다. 특히 주 양육자는 가족의 경제적 역할과 양육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기에 역할의 과중을 경험한다. 모자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성미애·진미정, 2009)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철저히 어머니로 삶을 살면서 외로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허전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한다(손서희, 2013). 부자가족의 경우 모의 부재상황에 자녀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현은민, 2008).

(3) 심리·정서적 측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역할가중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연결된다. 이혼 및 사별, 미혼 출산,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한 절망감과 동시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담감 또한 느끼게 되며 자녀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심리적 고민으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조희선·전보영, 2013).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적 상처가 미처 치유되기 전에 현실적인 사유로 인하여 자녀돌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돌봄에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눌러왔던 정서적 어려움이 뒤늦게 올라오기도 한다(손서희, 2013).

(4) 사회적 측면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은 또한 대인관계의 위축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부모가족으로서 배우자 관련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현은민, 2007; 김영주·유병선, 2010),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가족, 직장동료, 친구, 이웃 등 사회관계망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신희정, 2013; 김정현, 2012).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하거나 편견 혹은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속마음을 터놓고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2. 사례관리

1) 사례관리 개념 및 실태

사례관리(Care management)는 전통적 사회복지의 실천이 빈약하고 파편적이라는 비판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실천현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례관리를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는데에 어려움을 가진다(King, 2006 ; 정순돌, 2005).

사례관리 과목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NASW(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3)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순돌·조지혜·신수정(2015)은 사례관리를 클라이언트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이라고 말했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였다(권진숙, 박지영, 2010). 이러한 사례관리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사례관리의 의미를 탐색해 보면 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자원을 지원 및 연계하여 클라이언트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복지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1)가족센터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을 근거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었다. 건강가정정책은 건강한 가정의 특성과 기능을 정책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국가의 의지로 가족전체성의 관점에서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을 중점에 두고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족정책을 통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2006년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한은주, 2021). 현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년 ~2025년)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주제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의 다변화 및 가족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의 관점의 가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 및 사용 권고되었으나 법적 및 행정적 변경 절차는 미처 진행되지 않아 표기의 혼란이 있는 상황. 또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이 2018년~2021년으로 센터명칭을 하나로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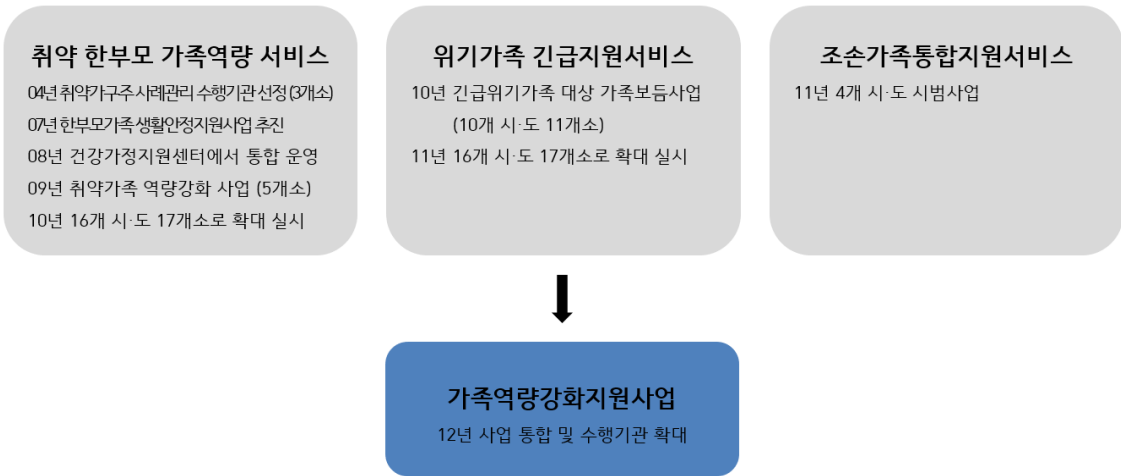
가족특성의 다변화와 다문화가족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편 논의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전후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송혜림 외, 2015).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분리운영 되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통합센터에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진 욕구들을 해소함으로써 가족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One-Stop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정민자, 2014). 이에 2014년부터 9개소에 대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의 통합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78개소, 18년 152개소, 20년 196개소 21년에는 203개소에서 가족지원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통합이후 센터 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명칭으로 인하여 특정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두 센터의 명칭을 병렬로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개별 지역적 여건과 정책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네 가지 사업 영역을 기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3) 가족사례관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센터가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 전달체계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진행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례관리가 개인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개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전체성, 상호의존성, 관계중심성과 같은 가족체계를 뼈대로 두고 통합적인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박정운, 박연숙, 전미경, 2019).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가족센터 가족돌봄영역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가족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4년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 강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 도입된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와 2011년부터 제공된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의 세 개의 서비스단위가 합쳐져 201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행기관이 15년 30개소, 18년 61개소, 21년 88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그림-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초기 진행 구성



[표-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연도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개소	30	47	61	70	79	88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 및 위기가족은 스스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내·외적 자원이 부족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어려우며, 가족으로서의 개인적·사회적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사회의 경제적,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하여 가족의 유형과는 별개로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하고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역량증진을 하기위한 발판으로 사례관리 개입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박정윤, 박연숙, 전미경, 2019).

이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 혹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심리·경제적 자립과 역량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가족사례관리 뿐만아니라 긴급 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배움지도사를 파견하는 자녀학습·정서지원 서비스, 키움보듬이를 파견하는 생활도움 서비스, 부모교육·가족관계·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역량강화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지원과정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과정

① 대상자 발굴 → ② 초기상담 → ③ 사례관리 등록 → ④ 욕구 및 강점사정 → ⑤ 서비스 계획
→ ⑥ 서비스 제공 → ⑦ 서비스 점검 → ⑧ 서비스 평가 → ⑨ 서비스 종결 → ⑩ 사후관리

- ①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에 맞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유관기관과 연계
- ② 초기상담 : 욕구 및 주요문제 탐색, 대상가정 선정 여부 판단 과정
- ③ 사례관리 등록 :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절차 진행
- ④ 욕구 및 강점사정 : 대상가정의 욕구 파악 및 분석, 우선순위 설정 및 종합
- ⑤ 서비스 계획 : 변화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⑥ 서비스 제공 : 대상가정에 적합한 서비스 및 직·간접적 자원 연계
- ⑦ 서비스 점검 : 6개월 이내 재사정 실시
- ⑧ 서비스 평가 : 서비스 제공 1년 시점, 목표 대비 개선 및 향상 여부 확인
- ⑨ 서비스 종결 :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지속 여부 판단
- ⑩ 사후관리 : 종결 1, 3, 6개월 간격 모니터링 실시, 재개입 필요성 파악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Ⅱ)』

3.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

임상심리학자 Maslow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욕구단계이론을 발표한다. Maslow는 욕구단계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 첫째, 인간은 부족하며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므로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게 된다.
- 둘째, 이미 채워져 버린 욕구는 인간의 행동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게 된다.
- 셋째, 인간이 가진 욕구는 삶 속에서 중요성에 따라 계층으로 배열된다.
- 넷째, 인간은 자아실현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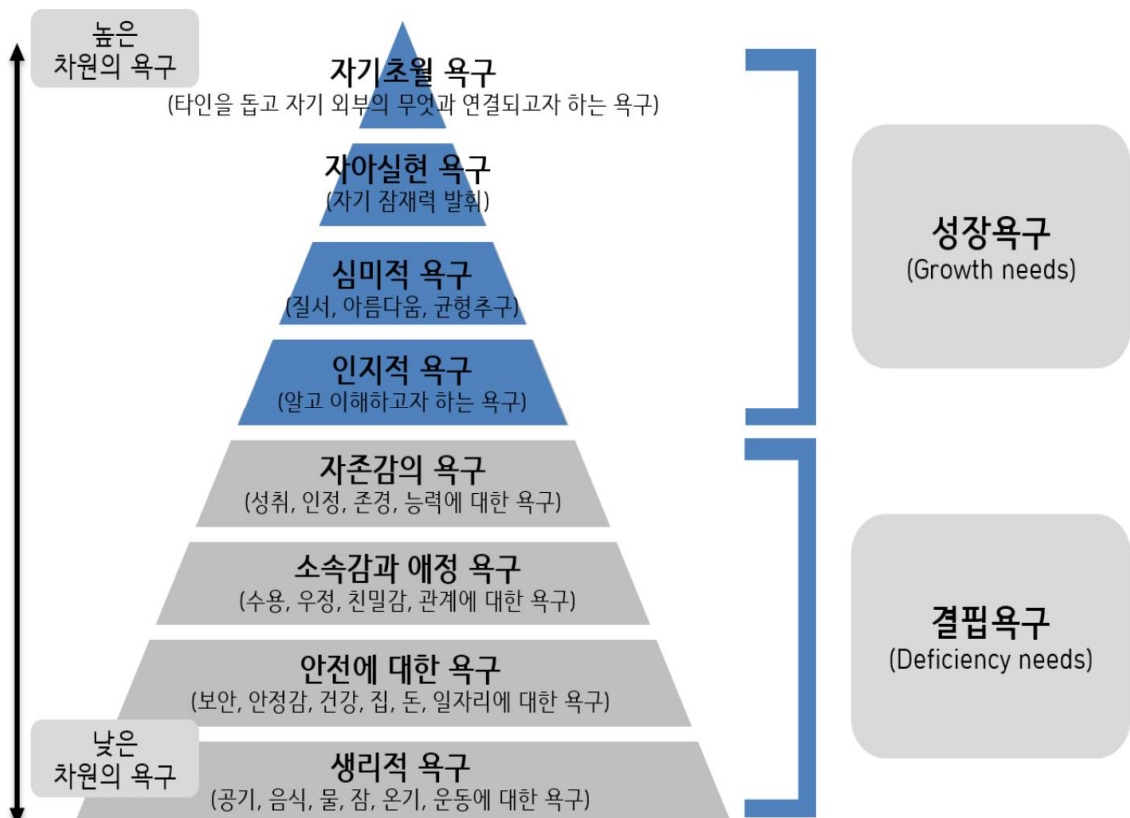
출처 : Maslow Abraham (2010) 『매슬로의 동기이론』

초기 욕구단계이론에서 욕구는 5단계의 계층을 형성하며 낮은 차원의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높은 차원의 욕구(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동기부여로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Maslow, 1943). Maslow는 욕구 5단계로 인간의 모든 욕구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인간이 가진 욕구도 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현대시대에 걸맞는 진화된 8단계 욕구이론을 소개하게 된다. 기존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 욕구, 자존감의 욕구를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라고 정의하였다(Maslow, 1992). 또한, 성장욕구(growth needs)

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세분화하여 인지적, 심미적, 자아실현, 자기초월의 욕구로 제시하며 잘 적응하는 인간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체계를 재구성하였다(Maslow, 1992).

잘 적응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욕구의 과정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즐기고 새로운 학습 능력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다(Maslow, 2010). 또한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았으므로 인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였다(장재인, 2020). Maslow가 바라본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고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아실현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Maslow, 1943).

[그림-5] Maslow의 욕구 8단계 피라미드



1)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의식주 생활을 포함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 산소, 배설, 휴식 등에 관련되어 있다(Maslow, 2010).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김도희, 2019).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관심은 당연히 그곳으로 쏠리게 되고 만다. 예시로 음식은 배고픈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행동, 상상력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안전에 대한 욕구 (Safety needs)

안전은 인간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 등의 기본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과 안전 예측 가능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친숙감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Maslow, 2010).

3) 소속감과 애정 욕구 (Love&Social needs)

생리적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상위개념인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친밀감과 사랑 등에 관련된 소속감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Maslow, 1943). 대부분의 인간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적 관계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소속감과 애정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고립감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Arditte, Morabito, Shaw, & Timpano, 2016).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강해지면 거절이나 사회적 고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4) 자존감의 욕구 (Self-Esteem needs)

Maslow는 자존감의 욕구를 자기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존중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감, 성취, 능력, 독립심, 숙달감 등에 관한 개인적인 욕구이며 이것을 충족시키게 되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Maslow, 2010). 반대로 자기존중이 결여된 사람은 스스로를 남보다 잘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은 스스로의 행동, 인성, 인격에 대해 타인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뜻하며 인간은 개인의 성취에 대한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김도희, 2019). Maslow는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에 대하여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판단을 기초로 해야하며 사회적 지위, 명예, 명성 등은 노력없이 얻어질 수 없고 노력의 결실이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Maslow, 1943).

5) 인지적 욕구 (Intellectual needs)

문화, 교육, 지식적인 것들에 대해 알고자하는 인지적 욕구는 학문이나 정보 등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욕구이다(장재인, 2020). 현대의 광범위한 정보화와 수많은 이론 속에서 문화적 체험 혹은 교육을 통하여 표현, 과정, 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 혹은 경험의 재구성 및 재발견을 통하여 인지적 습득, 이해, 배움 등을 추구하게 된다(Maslow, 1992).

6) 심미적 욕구 (Aesthetic needs)

문화 혹은 예술을 추구, 자연이나 환경을 통하여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서적 및 감성적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이다(Maslow, 1992).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나 문화예술 감상이나 체험을 추구하고 미적 감각, 질서와 균형 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장재인, 2020).

7) 자아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여 스스로가 가진 인생의 가치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욕구로 5단계 욕구보다 8단계 욕구분류에서 자아실현 욕구는 보다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대인관계, 창의적인 활동, 자연 및 예술에 대한 감상, 나아가 부모가 되어서도 스스로의 자아실현 절정 경험을 하게 된다(Maslow, 1992).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안정보다는 과감하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장재인, 2020).

8) 자기초월 욕구 (Meta needs)

Maslow는 후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뛰어넘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완벽한 완성을 넘어 타인이나 사회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초월의 욕구이다. 이 욕구는 낮은 수준의 욕구 단계가 상위 단계로 전환되기 위하여 각 단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단계별 작은 자기초월을 이루고, 모든 단계에 대한 초월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큰 자기초월'이 발현한다고 하였다(Maslow, 1992).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의 과정, 조직의 능력, 실행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8). 다시 말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택과 그것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 작동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기효능감인 것이다(이영광·지은구, 2017).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과제에 대한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잘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86). Snyder & Lopez(2002)는 자기효능감을 단순한 행동에 관한 예측이 아니라, 내가 할 것 이라고(will) 믿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고(can) 믿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스스로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 혹은 자신이 가진 효능성 인식에 대한 결과로 자기효능성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Self-Efficacy) 또는 지각된 효능감(Perceived Efficacy)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기효능감의 기능으로 스스로의 환경과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며, 노력의 양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인지과정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도전적이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김재근, 2004).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 특정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도전적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본인만의 과정과 결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Schunk, 1984).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하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Bandura, 1986).

또한, 개인의 목표설정 수준에도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친다(Maddux, 199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과업이라고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목표를 달성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Salomon, 1984; Locke&Latham, 1990).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보다 낮은 목표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특정한 성과를 얻기위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노력하면 성취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가능성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통하여 힘든 과업도 성취로 이끌어 낼 수 있다(Schmidt & DeShon, 2010).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수반되는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addux, 1995). 이것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경우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강하므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경우 부정적인 정서에 동화되기 쉬우므로 문제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등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 중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 언어적 설득, 대리적 경험, 개인의 생리·정서적 상태, 성공에 대한 경험의 네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andura, 1986).

5. 가족기능

가족은 인간의 출생과 동시에 형성되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바탕으로 양육 및 사회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근원적 집단이다(Freidman, Bowden & Jones, 2003). 가족의 심리·사회적 건강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성숙한 가족관계, 원활한 가족과정을 뜻하는 가족기능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이경희·유영달, 2006).

가족기능(Family Function)이란 일상 속에서 가족 상호작용이 얼마나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이정호, 2007). 또, 가족이 하나의 소집단 단위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며(김주수, 1982), 사회를 유지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의 활동을 뜻한다(오명근·이중수, 1989).

Freidman(1987)은 가족이 잘 기능한다는 것은 성격과 행동이 안정되어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형성할 수 있고, 가족관계를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가족정체감을 기반으로 개인정체감(personal identity) 및 사회정체감(social identity)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Olson, Rusell & Sprenkle(1979)은 균형있는 가족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나 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기능적으로 조화로운 가족은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 유대감 형성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의 상호간 정서적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며, 가족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정서적인 유대감, 가족구성

원 간의 경계, 가족의 지지, 가족 공동시간의 정도, 가족구성원 간의 경계, 친구관계 및 여가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발달적 및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역할관계, 관계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lson, 1985).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잘 대응하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잘 기능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Green, Kolenzon, & Vosler 1985).

Murdouc(1949)은 가족기능을 경제적, 성적, 교육적 및 재생산의 네 가지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의 성적 및 재생산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회는 존재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경제적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지고, 교육적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문화 존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의 유지 및 존속은 불가능하게 된다(서선희, 1986; 유영주 외, 2004).

일반적으로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자율성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간 상호작용이 원만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해나간다(유영주, 2004). 또한, 부모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애착관계가 안정적이며, 높은 정서적 친밀감을 보인다(박재산·이미순·문재우, 2011).

반면에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은 규칙을 지키거나 욕구를 충족시키 못하여 긴장하지 못하며 미성숙한 관계형성으로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등 역기능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전영주·이숙현, 2000). 역기능적 가족이 가지는 문제로 가족간의 경계와 더불어 구성원들 사이의 권력유형도 관련이 있다(Minuchin, 1974).

6. 선행연구 고찰

앞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사례관리에 관련된 실천 및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시작된 사례관리 개념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사례관리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사례관리가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서비스,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인 실천방법으로 주목받자 민간영역을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국형 사례관리 모델을 제시하기위한 탐색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은정, 2015).

특히 가족사례관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현장의 사례관리사 또는 실무인력의 실천경험에 대한 연구로 김승권·황성철·김연우(2013)는 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교육수준, 소속 기관의 특성, 대상자의 문제유형과 심각도 등의 요인들에 의해 사례관리사 역할 범위에 수행의 강도가 달라짐을 제시하였고, 김은정(2015)은 사례관리사가 이해하는 사례관리 및 현장 실천경험의 양상과 사례관리사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가족

사례관리의 실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례관리의 명확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더불어 가족사례관리에 대한 개념화의 어려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최지선, 2012; 김영숙·임효연·신소라, 2009)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된 이후 강기정, 이무영, 정은미(2013)의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초기 도입 시 그 목적과 개념에 대한 혼돈이 존재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명료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가족사례관리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사례관리 개입이 가족의 역량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 사례관리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가족사례관리의 사업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례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라고 제시한 연구(정지영·박정윤·고선강·이희윤, 2015; 황정임·정가원·김유나·이호택, 2015; 강기정·박수선, 2013; 김승권, 2010)들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사례개입 및 자원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잘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와 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부모에 관련된 연구에서, 많은 여성 한부모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김경애, 1999; 김영주·유병선, 2010; 손서희, 2013; 조희선·전보영, 2013).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 여성한부모의 생활 실태, 생활 만족도, 소득과 더불어 물질적인 어려움 등에 관한 사회, 경제적 현실의 어려움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재림·옥선화, 2001; 권소영·옥선화, 2005; 진미정·김은정, 2005; 최명선 외, 2007). 이들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녀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에 관련된 연구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한 연구들(강욱모, 2004; 강지원, 2009; 김학주, 2004; 문은영·전경옥, 2005; 박명선, 2006; 박복순, 2008; 심창학, 2003)과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최연실, 2005; 황은숙, 2007, 김승권, 2010).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인 사항들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문제, 자녀양육 및 돌봄, 가사노동 부담, 역할수행의 과중, 혼란, 심리적 불안정, 외로움,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족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논의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부모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결과나 한부모 가구주 당사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사례관리 경험 연구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혹은 기관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져 왔으며(임효연·이사라, 2013; 박정윤·박연숙·전미경, 2019; 황재경, 2021), 실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들의 수는 많지 않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이언트들의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접

근한 이정희·김영숙(2017)의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가족재건 프로그램 참여, 자조집단 형성 등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도록만 진행하지 않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사례관리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에 대하여 수정근거이론으로 접근한 양호정·윤귀선(2017)의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경험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한부모가족에게 사례관리 개입은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사례관리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통하여 사회로 한발짝 나가는 등 성장하였다고 말하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이기연·박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개입 전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삶에서 기존 한부모 서비스는 ‘여지를 주지 않았으나’ 사례관리 서비스는 ‘길을 내는 서비스’로 표현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연을 날리고, 비밀 언덕이 생기고, 세상에 눈을 뜨게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통가정의 삶으로 변화함을 논의하였다.

이렇듯 한부모가구의 욕구와 사례관리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일뿐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부모가족들의 욕구를 살펴보면서 한부모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적 차원의 서비스 개입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 개입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사례관리의 접근이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으나, 개인 및 가족 차원 중 어떠한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 및 가족차원을 분리하여 사례관리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혼합연구방법의 이해

1) 혼합연구방법의 개념

혼합연구(mixed methods)란 어떠한 현상에 대해 파악하거나 그 속에서 이론적 원리를 찾거나 혹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 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질적(quantitative and qualitative), 다중(multi), 합성(synthesis), 통합(integrating)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다가 최근 혼합연구의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Bryman, 2006; Teddlie & Tashakkori, 2015; Creswell, 2017a; 홍지은, 2018). 학자들은 혼합연구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혼합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개념과 정의를 중심으로 재개념화를 해보면 양적접근과 질적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두 접근이 가진 장점을 살려 연구에 대하여 ‘온전하고’, ‘광범위한’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철·김영천·김경식, 2013).

[표-3] 혼합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

학자	개념 정의
Johnson & Onwuegbuzie (2004)	교육 및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 내에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통합적 과업
Mertens (2005)	연구목적의 설정에서부터 글쓰기 및 연구문제의 재구성에 이르는 13가지의 과정을 통해 통합연구방법을 개념화
Collins et al. (2006)	연구자가 단일연구 내에서 양적, 질적인 연구기법, 방법, 접근, 개념 그리고 용어를 통합,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
Creswell & Plano Clark (2007)	연구의 다층적 과정에서 양적/질적 접근의 통합적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이끄는 철학적 틀을 겸비한 연구설계
Tashakkori & Creswell (2007)	단일연구 혹은 조사 프로그램에서 자료수집 분석, 결과 통합 및 도출을 위해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것
Tashakkori & Teddlie (2015)	연구문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그리고 분석절차 및 도출에서 질적과 양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설계

출처 : 이현철·김영천·김경식(2013)의 재구성

2) 혼합연구방법의 특성

Creswell(2018)은 혼합연구의 4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문제에 따른 양적 및 질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둘째, 견고한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셋째, 혼합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양적 및 질적 데이터의 결과를 혼합하거나 혹은 통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넷째, 때로는 혼합연구의 설계를 철학, 이론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혼합연구가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합연구가 단일 연구 설계보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첫째, 질적 및 양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여 다양한 탐구적, 확증적 문제에 대한 동시적인 강조가 가능하며 둘째, 보다 강력한 추론을 제공하고 셋째, 다양한 관점에 대해 보다 잘 분류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Teddie & Tashakkori, 2015).

본 연구는 이혼, 사별, 미혼, 별거 등의 아픔을 겪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대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에 연구자와의 라포형성 없이 설문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왜곡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질적데이터만을 수집하게 되면 사전 사후 결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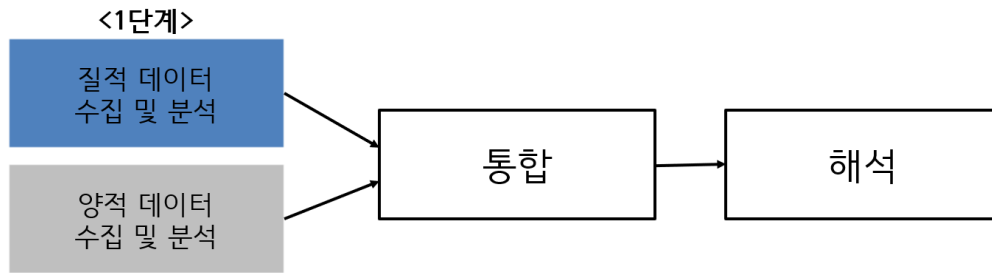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성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 양적·질적연구 패러다임을 혼합한 형태의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3) 혼합연구방법의 설계 모형 : Creswell

(1) 수렴적 설계 (Convergent design)

수렴적 설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한 후 분석을 하면서 시작된다.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합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수집된 이후 해석 또는 추론을 도출하게 된다(Creswell & Clark, 2018). 이후 양적결과가 질적결과에 의해 혹은 질적결과가 양적결과에 의해 어느정도까지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한다(최세은, 김미영, 손서희, 2020). 수렴적 설계는 양적 및 질적 데이터의 결과를 통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두가지 데이터는 서로 다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적 및 질적 데이터 결합과정은 연구문제를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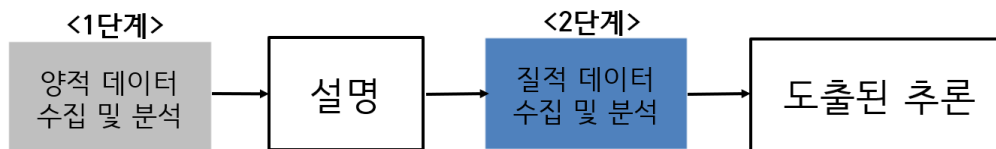
[그림-5] 혼합연구 : 수렴적 설계 모형



(2) 설명적 순차 설계 (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 먼저 양적연구를 수행한 후 결과를 분석한 다음 단계에서 질적연구와 함께 더욱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결과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최경화, 2020). 설명적 순차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어떠한 결과가 추가적인 탐구를 요하는지를 파악 또는 이후의 질적연구 단계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질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양적분석을 실시하고 양적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Creswell & Clark, 2018). 설명적 순차 설계는 양적 및 질적분석의 단계가 상호 기반을 두고 있기에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쉽고 뚜렷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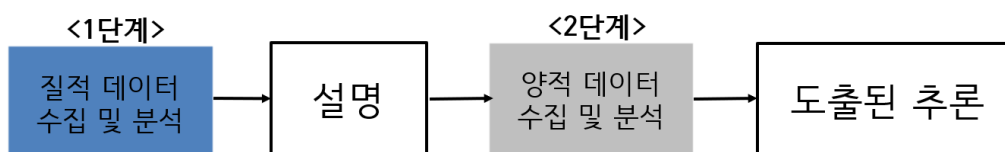
[그림-6] 혼합연구 : 설명적 순차 설계 모형



(3) 탐색적 순차 설계 (Exploratory sequential design)

탐색적 순차 설계의 절차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질적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새로운 측정, 도구, 중재 등의 양적 연구 설계 및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Creswell, 2017). 양적자료로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거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질적자료의 비중이 큰 특징을 가진다.

[그림-7] 혼합연구 : 탐색적 순차 설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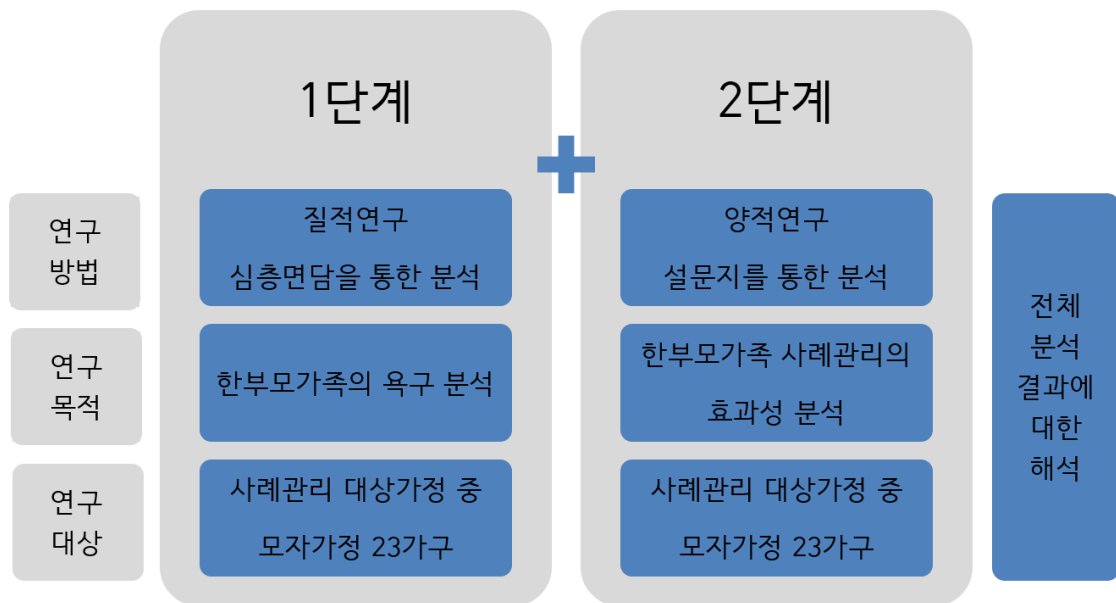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사례관리 효과성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eswell의 혼합연구방법의 설계모형 중 탐색적 순차 설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면담 및 사정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23가정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며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후 2단계에서는 사례관리 개입 전/후의 진단검사를 통해 질적 결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얻어 사례관리 효과성 연구를 양적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8]과 같다.

[그림-8] 탐색적 순차설계 연구 수행 과정



본 연구에서는 가족사례관리에 참여한 한부모가족들을 초기 면담한 종합정보 기록지와 욕구 사정지, 서비스 계획서 및 종결 기록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동의서,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자료를 수집 후 욕구 및 사례관리 효과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류된 범주의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은 질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Padgatt, 1998).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를 진행하는 전과정에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는 목적을 가지거나 시각을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분석결과를 가족관련 분야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인, 가족과 상호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9년차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관리팀의 팀장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 스스로의 경험으로 인해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혹은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아닌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으로 해석한 정보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를 가졌다. 이를 위해 지도교수와 가족학 박사 3인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U시 N구 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족사례관리를 진행한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전체 156가정 중 한부모 가정 52가정을 1차 선별 후 사례관리 등록-진행-종결까지 완료한 29가정을 2차 선별하였으며 이 중 사례수가 작은 6가구의 부자가정을 제외하고 23가정의 모자가정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초기면담 인테이크 진행 시 서면을 통하여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부모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23명으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30.3%로 40-50대가 80%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30대가 13.1%, 20대가 4.4% 순이었다. 자녀 수는 평균 1.91명으로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1자녀 양육가정 34.8%, 3자녀 양육가정 26.1%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은 평균 13.95세로 10대 자녀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미만 20.5%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90%가 미성년자녀였으며, 20대 9.1%, 30대 2.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은 공적지원을 받지 않지만 소득은 낮아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복지사각지대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72% 이하 가정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으로 공적지원을 받는 가정이 30.4%, 차상위계층으로 법정한부모지정을 통한 세금감면 및 한부모가족 자녀수당을 받는 가정이 13.0%, 시설수급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이 60.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이 39.1%였으며, 수입원으로는 공공부조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가정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를 하는 가정과, 풀타임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 근로를 하는 가정이 각각 26.1%와 21.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 등 공공근로를 통한 조건부수급을 지원받는 가정이 8.7%, 풀타임 정규직 근무를 하는 가정은 4.3%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한달 평균수입은 111.35만원으로 100~150만원 미만이 47.8%, 100만원 미만이 43.5%로 91.3%의 가정에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2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8.7%였으며,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23)

구분(평균)	빈도수(단위:명)	구성비율(단위:%)	
연령 (44.61세)	20대	1	4.4
	30대	3	13.1
	40대	12	52.2
	50대	7	30.3
자녀수 (1.91명)	1명	8	34.8
	2명	9	39.1
	3명	6	26.1
자녀연령* (13.95세)	10대 미만	9	20.5
	10대	30	68.2
	20대	4	9.1
	30대	1	2.3
소득유형	기초생활수급	7	30.4
	시설수급	1	4.3
	차상위계층	3	13.0
	중위소득 50~72%	12	52.2
경제활동 유무	유	14	60.9
	무	9	39.1
수입원	공공부조	9	39.1
	공공근로	2	8.7
	파트타임	6	26.1
	계약직	5	21.7
	정규직	1	4.3
평균수입 (111.35만원)	100만원 미만	10	43.5
	100~150만원 미만	11	47.8
	150~200만원 미만	2	8.7

* 가정별 자녀수는 1~3명으로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음 (N=44)

연구 참여자들의 한부모관련 정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한부모가 된 기간은 평균 6.13년으로 이혼으로부터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이 26.1%, 15년 이상이 13.0%, 10~15년 미만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는 가정 수와 관계 없이 호소하는 사유를 모두 집계하였으며 경제적 무능이 22.5%로 가장 많았으나 가정폭력과 알콜,

도박, 게임 등의 중독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각각 20.0%, 양육 미지원, 반복되는 가출 등의 가정생활에 불성실한 경우가 17.5%로 네가지 사유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외도, 성폭력과 미혼출산이 각각 5.0%, 사망 및 성격차이가 2.5%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참여자 23명 중 미혼 출산 2명과 사별 1가정을 제외한 20가정이 이혼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이 되었으며, 이혼 방법으로 합의이혼이 60.0%로 가장 많았고, 소송이혼이 35.0%였으며 조정이혼은 5.0%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10%로 90%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가정은 30%, 진행하지 않는 가정은 70%로 조사되었다.

[표-5] 연구 참여자의 한부모 관련 특성

(N=23)

구분(평균)	빈도수(단위:명)	구성비율(단위:%)	
한부모 기간 (평균 6.13년)	5년 미만	12	52.2
	5~10년 미만	6	26.1
	10~15년 미만	2	8.7
	15년 이상	3	13.0
한부모 사유*	가정폭력	8	20.0
	성폭력	2	5.0
	경제적 무능	9	22.5
	외도	2	5.0
	중독 (알콜,도박,게임 외)	8	20.0
	가정생활 불성실 (양육 미지원, 가출 외)	7	17.5
	미혼출산	2	5.0
	사망	1	2.5
	성격차이	1	2.5
이혼방법**	합의이혼	12	60.0
	조정이혼	1	5.0
	소송이혼	7	35.0
양육비**	유	2	10.0
	무	18	90.0
면접교섭**	유	6	30.0
	무	14	70.0

* 가정수와 관계없이 중복카운팅 하여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음 (N=44)

** 미혼출산 및 사망으로 인한 결측치를 제외하여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음 (N=20)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전체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사례관리 초기면담 인테이크 진행 시 대상자들을 대면하여 심층면접과 관찰 진행,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후 가정방문, 내방 및 유선상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기면담의 방법은 연구자와 대상자 1:1 혹은 연구자와 대상자 가족의 가족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장소는 가정방문, 상담실, 기관방문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질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의 질문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호소문제, 대상자를 둘러싼 개인과 가족의 환경적인 조건, 지지체계,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또, 초기면담과 종결면담 시 동일한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지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 종결 후 종결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접한 대화 내용과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고, 자료수집 도구로 연구 참여자가 직접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기효능감 척도, 가족기능 척도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자는 종합정보 기록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타 정보를 노트하였다.

2) 자료의 기록과 분석

사례관리 신청서와 초기면담 시 대상자들과의 인테이크 진행 후 작성한 종합정보 기록지, 욕구강점 사정지, 서비스 계획서를 통하여 연구자가 1차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분석, 사례관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대조하여 각 사례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관리 개입 전후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초기면담 진행 시, 사례관리 종결면담 진행 시에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를 진행하여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지로 2019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척도(6문항) 및 가족기능척도(21문항)을 활용하였다.

1단계 질적분석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한부모가족을 초기면담 한 인터뷰 내용과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면담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해당 가정의 욕구 및 삶의 목표 등을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맞게 범주화하고, 분류된 범주 내의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도구로 QSR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질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 R1(박종원, 2020)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한글과 컴

퓨터(hwp)로 저장 후 이를 워드(docx) 파일로 변환하여 NVivo R1과 연동하였다. 이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자가 의미있다고 판단한 문장들에 대해 코드(code)를 구성하였고 비슷한 분류의 코드를 하나로 묶어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류를 진행하였다.

[표-6] 분석영역별 코딩 현황

욕구 단계	코딩 값
생리적 욕구	59
안전에 대한 욕구	54
소속감과 애정욕구	37
자존감의 욕구	19
인지적 욕구	-
심미적 욕구	-
자아실현 욕구	23
자기초월 욕구	1

2단계 양적분석은 데이터를 코딩(Data Coding)하고 클리닝(Data Cleaning)을 하는 과정을 거친 후, IBM SPSS Statistic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례관리 종결보고서를 통하여 제공된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에 대한 사전/사후 척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의 사전/사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한부모가족의 욕구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호소하는 욕구를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내용분석방법의 연구 결과로 모자가족의 욕구에 대한 의미단위는 193개, 하위구성요소는 23개와 12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로 도출된 근로활동, 경제, 주거환경, 건강회복의 4가지 영역이 해석에 따라 생리적욕구 및 안전에 대한 욕구에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생리적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연구자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및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돈과 관련된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도움을 받으면 안정화의 상태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태로도 생활은 할 수 있는 욕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생리적욕구에 의식주 및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재화로 근로활동, 경제, 주거환경의 욕구를 분류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욕구에 건강회복, 자녀돌봄의 욕구를 분류하였다. 소속감과 애정욕구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자존감의 욕구는 잘 해내고 싶고, 잘 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욕구는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재미를 필요로 하는가의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심미적 욕구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스스로가 되고싶은 모습에 대한 욕구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자기초월욕구는 개인 내적인 성장을 넘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욕구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욕구단계 분류 기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가?	YES ▶ 자기초월 욕구
No ▲	
스스로가 되고 싶은 모습인가?	YES ▶ 자아실현 욕구
No ▲	
자연경관이나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가?	YES ▶ 심미적 욕구
No ▲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재미를 필요로 하는가?	YES ▶ 인지적 욕구
No ▲	
잘 해내고 싶고, 잘 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가?	YES ▶ 자존감의 욕구
No ▲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인가?	YES ▶ 소속감과 애정욕구
No ▲	
현재의 상태로도 생활은 할 수 있으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정화 될 수 있는가?	YES ▶ 안전에 대한 욕구
No ▲	
의식주 및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재화인가?	YES ▶ 생리적 욕구

위 기준을 따라 12개의 구성요소를 욕구 8단계에 맞추어 다시 한번 범주화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한부모가족의 욕구 범주화는 [표-8]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욕구 중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로 분류된 욕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성장욕구에 대한 호소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8] 한부모가족의 욕구 범주화

Maslow 욕구단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생리적 욕구	근로활동	근로 기술 부족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돌봄으로 인한 제한적 근로
	경제	소득의 부족
		부채로 인한 부담
	주거환경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 안전 취약		
안전에 대한 욕구	건강회복	신체적 질병 및 어려움
		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
	자녀돌봄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 돌봄의 어려움
		다각적인 일상 경험 제공
소속감과 애정욕구	가족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어려움
		전남편과의 관계 정리
	사회적관계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 단절
		사회적 지원정보 부족
자존감의 욕구	부모효능감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부모로써 잘하고 있는지 확신 부족
인지적 욕구	-	-
심미적 욕구	-	-
자아실현 욕구	자립	자립을 위한 나의 역량 증진
	성장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 희망
	행복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음
자기초월 욕구	봉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1) 생리적욕구

[표-9] 생리적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경력이 없음 (6, 12, 18) -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근로경험 (1, 10, 11, 15) - 결혼, 출산의 과정으로 근로 경력이 단절 (7, 8) 	근로 기술 부족 (N=9)	근로활동 (N=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이후 회복 중으로 근로 불가 (1, 20) - 만성질환 및 약한 체력으로 근로 불가 (9, 12, 13)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N=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질병 및 장애로 인한 근로활동 제한 (5, 21, 23) - 자녀 돌봄 공백을 지원받을 다른 자원이 없어 근로를 포기 (6, 7, 10, 13, 15, 23) 	자녀 돌봄으로 인한 제한적 근로 (N=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조 지원으로 생활 유지 (1, 3, 10, 19, 20, 23) - 원가죽 및 양육비 지원으로 생활 유지 (7, 8, 17) -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음 (2, 5, 6, 14, 21, 22) 	소득의 부족 (N=15)	경제 (N=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채 발생 (6, 18, 20, 22) - 한부모가 된 이후 부채 발생 (10, 11) 	부채로 인한 부담 (N=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아서 분리가 되지 않음 (14, 22) - 오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 (2, 12, 23) - 가구가 없거나 정리수납이 되지 않음 (3, 10) 	열악한 주거환경 (N=7)	주거환경 (N=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에 취약한 주거환경 (4, 23) -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미루고 있음 (4, 11) - 월세 부담이 큰 주거환경 (6, 14, 15, 18) 	주거 안전 취약 (N=8)	

구성요소1. 근로활동

본 연구대상자 중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총 23건으로 근로기술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운 경우(사례 1, 6, 7, 8, 10, 11, 12, 15, 18)과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장시간 근무 및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경우(사례 1, 9, 12, 13, 20), 또 자녀의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사례 5, 6, 7, 10, 13, 15, 21, 23)로 나타났다.

(1) 근로기술 부족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근로기술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들다고 한 답변 중 직업적

경력이 없어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사례 6, 12, 18), 직업적 경력은 있으나 경력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등 일시적인 근로경험만 있는 경우(사례1, 10, 11, 15), 결혼과 출산, 자녀돌봄 및 양육의 과정으로 인한 근로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경우(사례7, 8)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간이 될 때마다 각종 지원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해놓은 것이 있으나 경력도 전무하고 나이도 많고 해당 업무는 근로시간도 길어 현재 상황에서는 위 자격증을 활용한 취업을 어렵지 않을까...(사례 6)

자녀들에게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수급에서 탈피하고 싶으나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사례 12)

규칙이나 틀안에서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건 없어서... 메이크업, 미용, 술집, 카페 등 생각으로는 많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는거죠.(사례 18)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파트타임어 가사도우미나 시간 조율이 가능한 단순한 판매직 일들만 하긴 했다. 그래서 경력이 될만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이...(사례 1)

조건부수급 기간도 이제 진짜 끝나가니까 근로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노력해도 되지않고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는게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끼고...(사례 10)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근로기술이 없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공장에서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하는 업무만 하고 있으니...(사례 11)

근로 경력이라고는 결혼 전에 가족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일을 할려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할텐데...(사례 15)

간호사로 결혼 전에 근무를 했었고 결혼 후에도 1년정도 일을 했으나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로 더 이상 간호사로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사례 7)

10년이상 경력단절이 있어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결로는 생활이 어려워... 차라리 제대로 배워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사례 8)

(2)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장시간 근로 및 근로의 제약을 호소한 답변은 수술 이후 회복 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사례 1, 20)와 만성질환 및 약한 체력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사례 9, 12, 13)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수술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회복 중... 둘째 출산 후 암 수술을 했고, 2017년에는 갑상선 수술을 해서 아직도 회복하는 과정이죠. 부업이 있으면 잠시 하는거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아서...(사례 1)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그 이후 항암치료와 약물복용으로 신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저하증 등 후유증이 많아요. 특히 신장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면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산책정도 할 수 있고 컨디션이 안좋은 날은 온종일 누워있지만 하나까 일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사례 20)

원래 어린시절부터 체력이 약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일을 하는건 생각도 못하고 있고...(사례 9)

척추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근로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사례 12)

당뇨 때문에 공복에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몸을 잘못 사용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게 엄두가 나지 않아...(사례 13)

(3) 자녀 돌봄으로 인한 제한적 근로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의 어려움을 호소한 답변에서는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케어가 근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사례 5, 21, 23)와 자녀의 돌봄공백을 지원받을 다른 자원이 없어 근로에 제약을 받는 경우(사례 6, 7, 10, 13, 15, 23)로 나타났다.

첫째아이가 ADHD라서 매주 병원을 오가며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서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사례 5)

자녀의 항암치료로 간병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근로를 포기해야되고...(사례 21)

아이가 언어지연과 학교생활 부적응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수시로 없어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케어하기를 바라더라구요. 처음엔 회사에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틈틈이 학교를 방문해보기도 했는데... 결국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사례 23)

자녀가 아직 어린 관계로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5시 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보니 정직원은 안되고 보조로만 일할 수가 있더라구요. 자녀돌봄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보다 월급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요.(사례 6)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원래 하던 간호사 일은 꿈도 못꾸고 있어요. 아이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사례 7)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지만 둘째아이가 어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는 자리는 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래 일하기는 어렵더라구요.(사례 10)

일을 해야되는게 맞는데 셋째자녀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라 단시간 근로를 찾고 있지만...(사례 13)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시간 돌봄의 공백을 채울 방법도 변변치 않아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사례 15)

아이는 학교에서 수시로 없어지지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지.. 결국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사례 23)

근로활동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직업적 경력이 전무하거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근로경험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근로경력이 단절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근로기술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수술 이후 회복 중이거나 만성질환 및 약한 체력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나타났다.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자녀돌봄 공백을 지원받을 다른 자원이 없어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들은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족한 근로기술에 대한 훈련 및 경력 쌓기, 근로의 제한을 가져오는 신체적 질병의 치료, 자녀 돌봄 공백 채우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요소2. 경제

연구대상자 중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총 21건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1, 2, 3, 5, 6, 7, 8, 10, 14, 17, 19, 20, 21, 22, 23)와 부채로 인하여 가계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6, 10, 11, 18, 20, 22)로 나타났다.

(1)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공공부조 지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사례 1, 3, 10, 19, 20, 23)와 원가족 및 양육비 지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사례 7, 8, 17), 그리고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경우(사례 2, 5, 6, 14, 21, 22)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비 수급비가 합쳐서 140만원이 나오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빠듯하고...(사례 1)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혼소송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먼저 드렸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를 받아서 생활 중이고...(사례 3)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 110만원을 받고는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근로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2-3달 이후에는 수급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사례 10)

자활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근로를 하고 110만원을 받고 있어요.(사례 19)

생계비는 수급을 받아서 110만원 정도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어요.(사례 20)

한부모 수급비가 지금 75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네 명이 살기에는 많이 빠듯하죠... 기초생활 수급비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만나왔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사례 23)

현재 소득은 없고 양육비와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사례 7)

소득이 없어서 친정어머니 도움 아니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사례 8)

소득이 아예 0이에요. 아이 기저귀나 분유 살때도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사용해야되는 상황이라...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아예 없어서 힘들어요.(사례 17)

수급이나 차상위 지정은 불가능 하대요. 아이들 양육을 해야되니까 일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오전, 저녁 타임으로 두 번 나가고 있어요. 평균 100만원 정도...(사례 2)

평균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첫째아이 치료비로 상당 부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자아이 두명이다 보니까 식대비도 많이 나가구요.(사례 5)

시간제로 근무하다보니 소득은 80-90만원 정도.. 월세가 40만원이 나가니까 생활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긴급생계비 지원은 받았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더라구요...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크죠.(사례 6)

월에 150만원 정도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와 집 월세만 합쳐도 70만원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사례 14)

원래는 월 180만원 정도.. 지금은 그마저도 자녀 간병 때문에 휴가를 계속 사용중인 상태라서 더 적게 나와요.(사례 21)

그때 그때마다 연락이 오면 일을 나가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이 아무래도 적죠.(사례 22)

(2)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 경우(사례 6, 18, 20, 22)와 한부모가 된 이후 생활을 유지하며 부채가 발생한 경우(10, 11)로 나타났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부채가 있다는걸 발견했어요.(사례 6)

부채가 3,000만원, 원금은 800만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니 꽤 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사례 18)

아파트가 자가로 되어 있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은 여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내려가서... 아파트 가격을 훌쩍 넘는 1억 2천만원의 빚이 있어요.(사례 20)

전남편 부채가 있고, 사채를 빌려 쓰려고 하는걸 지금 막아놓은 상태...(사례 22)

지인에게 빌린 돈 220만원, 어린이집 미납금 20만원, 관리비 미납금 20만원, 가스비 미납금 20만원, 월세 미납금 40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월에 4만원씩 납부도 해야되는데 그것도 미납하고 있어요.(사례 10)

지금 집세가 300만원 정도 밀려있고 전세자금으로 00캐피탈에서 9,000만원 정도 대출받은게 있어요. 보험료도 밀려있는 상태인데 200만원 정도...(사례 11)

경제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공공부조, 원가족, 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이 부족'하다는 욕구가 있었으며, 한부모가 되는 과정 혹은 한부모가 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채가 발생한 경우 '부채로 인하여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강구 및 부채 경감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요소3. 주거환경

연구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총 15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2, 3, 10, 12, 14, 22, 23)와 주거지가 안정성이 취약한 경우(사례 4, 6, 11, 14, 15, 18, 23)로 나타났다.

(1)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좁거나 방이 적어서 분리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사례 14, 22)와 주거지가 오래되거나 고장이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2, 12, 23) 그리고 가구가 없거나 정리수납이 되지 않아 집안 내부 환경이 어수선한 경우(3, 10)로 나타났다.

원룸에서 세 명이 생활하고 있다보니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사례 14)

방이 1개 거실이 붙어있는 원룸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사례 22)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도배, 방충망 등 집안 곳곳이 허름하고 수리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죠.(사례 2)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입구쪽 창문을 깨버렸

어요. 바꿀려고 해봤는데 15만원이나 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테이프로
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거죠. 다치지 않을까 늘 염려되긴하죠.(사례 12)

창고를 개조해서 아이 셋과 같이 살고 있으니... 일반벽지는 곰팡이가 수시로 올
라와서 단열벽지로 벽이랑 천장에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곰팡이가 생기긴
하더라구요.(사례 23)

급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없는게 많아요. 책상이나 가구 이렇게 하나도 없으니
까 좀 험하긴 하죠.(사례 3)

가구는 비싸서 살 엄두가 안났고... 천으로 된 수납함이 벽쪽으로 줄을 서서 있는
데 아이들 장남감이나 그런게 바닥에 항상 널부러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많아서
제습기를 늘 켜놓고 있긴 한데 점점 심해지는거 같기는 해요.(사례 10)

(2)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환경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좁거나 방이
적어서 분리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사례 14, 22)와 주거지가 오래되거나 고장
이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2, 12, 23) 그리고 가구가 없거나 정리수납이 되지 않아
집안 내부 환경이 어수선한 경우(3, 10)로 나타났다.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보
안에 취약한 경우(사례 4, 23)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미루고 있는 경우(사
례 4, 11), 소득에 비하여 월세 부담이 너무 큰 경우(사례 6, 14, 15, 18)로 나타났다.

주택 뒤 작은 방을 얻어 집으로 사용하여 살고 있는데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되요. 특히 주인집 할아버지가 계속 아이들을 궁금해하는데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또 불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구요.(사례 4)

창고를 개조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문이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대문이 있기는 해도 아무래도 불안하긴 해요.(사례 23)

이사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하다보니까 막상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할 시간은 없더라구요.(사례 4)

재개발 때문에 집주인이 7월에는 이사를 해달라고는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크긴 크죠.(사례 11)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하고 싶은데 이혼한지 너무 얼마 안되어서 한부모가족 서류증명이 아직 안되었어요. 2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2달만 살 수 있는 월세방을 알아봤는데 월세가 40만원이라서...(사례 6)

원룸인데도 월세가 너무 커서 부담이 많이 되죠.(사례 14)

원가족이랑 같은 곳에 거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급하게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높은 곳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사례 15)

지금 집도 월세가 너무 큰데...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사례 18)

주거환경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좁아서 분리가 되지 않고 오래되거나 고장이나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가구가 없고 정리수납이 되지 않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나타났으며, 보안에 취약하고 월세부담이 크거나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미루고 있는 경우 ‘주거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1단계 : 생리적 욕구 연구결과 요약

욕구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인 생리적욕구의 구성요소는 근로활동, 경제, 주거환경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생리적욕구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로, 해당 단계에 결핍이 있을 경우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최 우선으로 고려 해야하는 부분이 근로, 경제, 주거환경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근로기술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제약, 자녀 돌봄과 근로의 병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부담이 된다고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의 문제를 가진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지가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근로활동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취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신체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혹은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소득 증가 방안 마련과 부채경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열악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2) 안전에 대한 욕구

[표-10] 안전에 대한 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 큰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생활에 제한 (1, 20) -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활에 제한 (10, 12, 13, 19)	신체적 질병 및 어려움 (N=6)	건강 회복 (N=14)
-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감정정리의 부재 (7, 8, 19, 20, 22, 23) -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5, 17)	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 (N=8)	
-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6, 11, 12) -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일상생활 적응 (11, 14, 18, 22) - 자녀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적응 어려움 (15, 23)	자녀의 심리적 안정 (N=9)	자녀 돌봄 (N=40)
- 자녀 돌봄 공백 (6, 9, 16, 22) - 자녀 신체적 질병 및 발달 지연으로 케어의 어려움 및 미안한 감정 (2, 5, 10, 15, 21, 23) -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역할부담 (4, 8, 11, 12, 14, 17, 18, 22, 23)	자녀 돌봄 어려움 (N=19)	
-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고 싶음 (2, 5, 6, 9, 10, 13, 15, 16, 18, 19, 20, 23)	다각적인 일상 경험 제공 (N=12)	

구성요소1. 건강

연구대상자 중 건강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총 14건으로 신체적 질병 및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1, 10, 12, 13, 19, 20)와 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7, 8, 15, 17, 19, 20, 22, 23)로 나타났다.

(1) 신체적 질병 및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큰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사례 1, 20)와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사례 10, 12, 13, 19)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나니 체력도 많이 약하고 집안일이나 아이들 돌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아요.(사례 1)

암수술 이후 신장질환, 고혈압, 고지혈등 등 만성질환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집앞 산책 정도 가능하고 다른건 어렵죠.. 아이들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사례 20)

나팔관도 한쪽 제거 수술을 받고, 꼬리뼈랑 허리도 휘어있다고 하는데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딱딱한 곳에는 아예 앉지도 못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건지 정확한 진단검사도 해본적이 없어서 치료할 엄두도 못내고 있죠.(사례 10)

척추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오래 서있는건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부담이에요. 누워있을 때만 그나마 나은데 맨날 누워있을수도 없고.. 진통제 이외에는 치료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심각하죠. (사례 12)

당뇨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꾸준히 약물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약값도 아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약을 못먹는 달도 있어요.(사례 13)

8년 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3년 전에는 추간판 탈출증 시술도 받았어요. 목디스크는 심할 때 2-3번정도 마비가 온적도 있어요.(사례 19)

(2) 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

심리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감정정리의 부재가 있었던 경우(사례 7, 8, 19, 20, 22, 23)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사례 15, 17)로 나타났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다보니 아직 이혼한 사실에 대한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했어요.(사례 7)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많은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술이나 이혼에 대한 감정정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사례 8)

이혼한지 9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고 지나가다가 이혼이라는 글씨만 봐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 뭐랄까.. 대인기피증 이라고 하나요...(사례 19)

남편이 아픈 저를 위해 병수발을 다 했죠. 몸에 좋다는거 약 담그고 지극정성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될줄은 몰랐죠. 다 내탓인것만 같고 괴롭고 힘들고...(사례 20)

아이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사례 22)

아이들이 그 폭력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어있었으니까 말해봤자 뭐하겠어요... 아직도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게...(사례 23)

건강회복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큰 수술 이후 후유증이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활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신체적 질병 및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감정정리의 부재가 있거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경우 '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질병을 모두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성요소2. 자녀 돌봄

연구대상자 중 자녀돌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총 40건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희망하는 경우(사례 6, 11, 12, 14, 15, 18, 22, 23)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사례 2, 4, 5, 6, 8, 9, 10, 11, 12, 14, 15, 16, 17, 18, 21, 22, 23), 그리고 자녀에게 다각적인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사례 2, 5, 6, 9, 10, 13, 15, 16, 18, 19, 20, 23)으로 나타났다.

(1) 자녀의 심리적 안정 희망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는 답변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염려하는 경우(사례 6, 11, 12)와 학교생활이나 교육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1, 14, 18, 22) 그리고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15, 23)로 나타났다.

아이는 전남편의 폭력상황에 대한 노출로 심리적인 불안증세가 있어 컴퓨터에 있을 때 지원을 받아 상담기관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걱정이 되죠.(사례 6)

아이는 아빠한테 맞고... 숨돌릴 곳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사례 11)

아이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다 보니 클수록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요.(사례 12)

그게 학교폭력이나 교우관계에서도 드러나는게 아닐까요.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거도 힘들었을거고...(사례 11)

둘째도 몰랐는데 왕따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안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잘 지내면 좋겠고 학교생활에서 덜 힘들었으면 좋겠죠.(사례 14)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 하는지도 어렵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잘 커졌으면 하는 맘이에요.(사례 18)

첫째자녀가 아무래도 교우관계도 좋지 않고 하다보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사례 22)

ADHD라서 이걸 지금 치료를 해줘야지 계속 가지고 가면 안되잖아요.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다른 기관 정보도 찾아보고 직접 연락도 해보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를 알아봐야죠.(사례 15)

둘째같은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들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죠. 큰 애도 그렇고...아이들이 다 안정이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사례 23)

(2)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답변에서는 자녀의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6, 9, 16, 22)와 자녀의 신체적 질병 및 발달 지연으로 케어의 어려움 및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사례 2, 5, 10, 15, 21, 23) 그리고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역할부담을 느끼는 경우(사례 4, 8, 11, 12, 14, 17, 18, 22, 23)로 나타났다.

근로 때문에 저녁시간대 혼자 있는 경우가 있죠. 나름 방편이라고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신청해놓았는데 학원비 같은거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사례 6)

제가 일하는 동안 집에 아이 혼자서 있으니까 휴대폰만 보려고 하고... 주변에 제가 없는동안 아이를 케어해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사례 9)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사례 16)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와서 그냥 있어요. 학원이나 이런건 전혀 안다니고요.(사례 22)

둘째 자녀가 또래보다 많이 작은 편이라 영양적인 부분을 많이 챙겨줘야하는데 줄일 수 있는 돈은 부식비밖에 없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차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늘 미안하죠.(사례 2)

첫째아이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00병원에 10년동안 다니고 있는데 감당이 되지를 않아요. 조만간 병원을 바꿔볼 계획도 있는데...(사례 5)

첫째아이는 언어지연이 있어 바우처 지원을 받아서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담소에 가는것도 매번 같이 가야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사례 10)

아이가 약을 먹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들고 아이와 저의 에너지가 너무 달라서 부담감이 크고 어려움이 많죠.(사례 15)

아이를 간병하자니 근로를 하기가 힘들고, 근로를 포기하자니 아이를 혼자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어요.(사례 21)

장애등급은 안받았으나 경계선에 있다고 하고 난독증이 있어서 수시로 학교에서 따라붙아야 하니 어려움이 있죠(사례 23)

아이가 셋이다 보니 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위해 싸우기도 하고, 저에게도 많이 바라는데 감당하기에 힘이 들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사실 모르겠어요.(사례 4)

혼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 힘이 들죠.(사례 8)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자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고민이 되죠.(사례 11)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욕을 하고 놀다보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때가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제일 커요.(사례 12)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해줘야할지 모르겠어요.(사례14)

그때 그때 발달에 맞게 잘 케어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사례 17)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사례 18)

첫째랑 둘째랑 투닥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고...(사례 22)

장애관정을 받으면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장애관정을 안받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깐 괜히 적절한 치료를 못해줄까봐 걱정도 되고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건 맞는데 어렵죠.(사례 23)

(3) 다각적인 일상의 경험 제공

다각적인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답변에서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사례 2, 5, 6, 9, 10, 13, 15, 16, 18, 19, 20, 23)가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죠. 아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싶어요.(사례 2)

일을 하다보면 아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죠. 짬을 내서 영화도 보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사례 5)

아이와 여가생활은 아예 해본적이 없어요. 아직 어린데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싶기는 하죠.(사례 6)

아이가 하교 후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체험활동이나 그런것도 하면 좋을거 같은데...(사례 9)

아이들도 활동적이라 체험활동 같은것도 좋아요. 다양하게 해주면 좋은데 돈도 들고 차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울 때가 더 많죠.(사례 10)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라 적극적이죠. 체험활동 같은것도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타깝죠.(사례 13)

제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아이와 시간을 온전히 가져본적이 거의 없어요. 주로 집에만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없고 하다보니까 함께 뭘 해본적이 없어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거 같아요.(사례 15)

아이와 놀러가본 기억은 크게 없는거 같아요... 항상 일을 해야되니까... (사례 16)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요.(사례 18)

가족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사례 19)

아이들 체험학습 같은 것도 시키고 싶지만 체력도, 경제적인 능력도 따라주지 않는거죠.(사례 20)

아이 셋을 혼자서 데리고 다니기 힘들지만 많은 경험을 했으면 싶어요.(사례 23)

자녀돌봄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경험이나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일상생활 적응 혹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돌봄 공백 혹은 신체적 질병 및 발달지연으로 케어의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역할부담이 있는 경우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다각적인 일상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자녀 심리 검사 및 문제 발생 시 치료지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모교육, 자녀 혹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경험의 기회 제공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2단계 : 안전에 대한 욕구 연구결과 요약

안전에 대한 욕구의 구성요소는 건강 회복, 자녀 돌봄으로 나타났다. 건강회복에서는 신체·심리적 질병 및 어려움이 나타났고 자녀돌봄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자녀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다각적인 일상 경험 제공의 욕구가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스스로의 삶을 안전한 환경이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체적 혹은 심리적 질병에 대한 건강회복의 욕구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돌봄에 부담이 있거나 자녀에게 다각적인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 및 심리적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돌봄 공백 해소와 더불어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 역할부담 완화 및 다양한 가족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뜻한다.

3) 소속감과 애정욕구

[표-11] 소속감과 애정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과 단절 혹은 거리상의 이유로 연락은 하지만 심리·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 (4, 10, 15) - 경제적 도움 및 돌봄의 도움은 받고 있으나 원만한 사이는 아님 (7, 17) 	원가족과의 관계 어려움 (N=5)	가족 관계 (N=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관계 소원 (8, 9, 14) -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 (11, 19) - 이혼의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등 정확한 가족관계 정리가 되지 않음 (2, 10) 	가족과의 관계 어려움 (N=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로인한 연락 및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서의 불편함 (7, 9) - 완벽한 관계정리가 되지 않아 어려움 (10, 11) 	전남편과의 관계 정리 (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입장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음 (8, 13, 18) - 한부모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 (8, 10, 14) - 이사 및 한부모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 (3, 10, 12, 15, 17, 19, 21, 22)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 단절 (N=14)	사회적 관계 (N=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은 받고 싶으나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음 (2, 4, 11, 16, 17, 20, 21) 	사회적 지원정보 부족 (N=7)	

구성요소1. 가족관계

연구대상자 중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 답변은 총 16건으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4, 7, 10, 15, 17)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2, 8, 9, 10, 11, 14, 19), 그리고 전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정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7, 9, 10, 11)로 나타났다.

(1) 원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원가족과의 단절 혹은 지역적 차이 등 거리상의 이유로 종종 연락은 하지만 심리·경제적 및 돌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사례 4, 10, 15)와 현실적인 이유로 경제적 및 돌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경우(사례 7, 17)로 나타났다.

원가족은 타지에 살고 있고 그나마 유대관계가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연락은 안하고 있어요. 가끔 여동생이랑 연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사례 4)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가족들이랑 따로 연락은 안하고 지내요. 그나마 관계가 이어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에 엄마나 언니랑은 전혀 연락은...(사례 10)

나를 입양해왔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었고요. 저를 짐짝처럼 여기는 가족들에게 많이 서운하고 화가나죠. 방황도 많이 했고... 어머니와는 아예 왕래를 안하고 동생은 그나마 연락 정도만...(사례 15)

가까이에 친정식구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랑 돌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지만 엄마는 제 상황을 속상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갈등이 계속 있죠.(사례 7)

아빠는 아이를 입양시키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말에 따르라고 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고 아빠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고...(사례 17)

(2) 가족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사례 8, 9, 14)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 경우(사례 11, 19), 그리고 이혼의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등 한부모가 된 이후 가족관계의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사례 2, 10)로 나타났다.

첫째자녀도 전학을 와서 적응하는게 어렵겠지만 둘째가 장애가 있다보니 손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 첫째한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점점 첫째 행동이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이 많아져서...(사례 8)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제가 출근하는 동안에 혼자서 있어야하는 부분도 그렇고 항상 신경이 쓰이는 존재인데 또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관계 회복 그런게 필요한거 같아요.(사례 9)

첫째 학교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이야기 해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가 말을 아예 안하니깐...(사례 14)

아빠랑 살고 있는 둘째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고 같이 살고 싶죠.(사례 11)

작은 아이보다도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큰 아이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사례 19)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으면서 이해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사례 2)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못했죠. 가끔씩 아빠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가끔씩 와서 아이들 만나주라고 하는데 그게 또 더 안좋은거 같기도하고 모르겠어요.(사례 10)

(3) 전남편과의 관계 정리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면접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전남편과의 연락 및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서의 불편감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7, 9)와 완벽하게 관계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10, 11)로 나타났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외도한 여자랑 같이 만나고 하니깐 그게 불편하고 화도 나도 아이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있는거 같아요.(사례 7)

저랑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아이와는 한번씩 만나고 있으니까 연락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근대 불편한 마음은 어쩔수가 없는거 아닐까요.(사례 9)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 하니깐 가끔 집에 오거나 그럴려면 연락도 하지만 이렇게 왔다갔다 할거면 이혼을 왜했나 싶기도 하고...(사례 10)

이혼은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안나가더라구요. 지금은 일 때문에 부산에 있기는

한데 짐도 아직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게 제 마음이죠.(사례 11)

가족관계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원가족과 단절 혹은 거리상의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거나 이혼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못하였거나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를 데려와 같이 살고 싶은 상황에서 ‘가족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접교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불편감을 느끼거나 완벽한 관계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전남편과의 관계 정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가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전남편까지 모든 가족은 결혼을 통한 독립 혹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에게 여전히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요소2. 사회적 관계

연구대상자 중 사회적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 답변은 총 21건으로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3, 8, 10, 12, 13, 14, 15, 17, 18, 19, 21, 22)와 사회적 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2, 4, 11, 16, 17, 20, 21)로 나타났다.

(1)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 단절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 혹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비슷한 입장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사례 8, 13, 18)와 한부모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8, 10, 14), 그리고 이사 및 한부모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사회적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사례 3, 10, 12, 15, 17, 19, 21, 22)가 나타났다.

고향이 00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한부모로써 나를 도와주거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편하게 같은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요.(사례 8)

한부모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지인들이 아닌 비슷한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조모임이라는걸 들어만 봤는데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사례 13)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양육에 대한 정보나 이런걸 나눌 사람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사례 18)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친구들이 많아도 텅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사례 8)

아이 학부모들과 모임을 하기는 해요. 근대 제가 저소득이고 한부모인건 오픈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울려서 카페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말을 하다보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불편하더라구요.(사례 10)

여기로 이사오고 나서는 사람들을 워낙 안만나고 하나까... 친구모임에도 한번 나가봤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싶더라고요.(사례 14)

아이 교복도 필요하고 한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사례 3)

남편이 한번씩 왔다갔다 하기는 하나까... 이혼한 것도 주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울릴때도 불편한게 많아요.(사례 10)

이사오고 난 이후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간혹 찾아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죠.(사례 12)

우울한거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거도 친구든 누군가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만한 사람은 없어요.(사례 15)

집에만 있고 아이를 돌보다 보면 병원에 가는거 말곤 외출할수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사례 17)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는거 같다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무섭고 그나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슷한걸 아니까 거기서만 조금 소통을 하지 다른 소통은 일정 안해요.(사례 19)

너무 갑작스럽게 되다보니 주변에 전혀 알리지도 못했고 도움 요청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사례 21)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환경이 아예 바뀌었죠. 그나마 이웃이라고 해야할까...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사례 22)

(2) 사회적 지원 정보 부족

사회적 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 분명 지원을 받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사례 2, 4, 11, 16, 17, 20, 21)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진짜 나중에야 신청을 했어요. 여전히 어디서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구요.(사례 2)

법정한부모 지정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어요.(사례 4)

소득상황으로는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이제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사례 11)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고 아이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건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모르겠고...(사례 16)

소득이 전혀 없으니까 아빠한테만 돈을 요청했지 구청에 전화를 해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있는건가 싶었어요.(사례 17)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값이 부채보다 더 작으니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이사를 해야되는데 이사를 하는것도 혹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사례 20)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가 아프다보니 지금 다른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복지 서비스 그런게 있다고 듣기만 들어봤지 뭐가 어떻게 되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사례 21)

사회적관계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비슷한 입장의 누군가와 의 정보교류를 희망하거나 한부모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해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사 혹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친구, 주변인 외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는 경우 ‘사회적 지원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관계 및 자원 연계 등의 공식적인 지지체계 만큼이나 친구 및 주변인과 같은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대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주변의 편

견이나 달라진 시선에 대한 경험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3단계 : 소속감과 애정욕구 연구결과 요약

소속감과 애정욕구의 구성요소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원가족, 가족, 전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나 주변인 등과 단절되어 사회적관계를 희망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원가족 및 전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부모가족 관계회복 사업의 대상을 부모-자녀로 제한하지 않고 원가족 및 전남편도 포함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자존감의 욕구

[표-12] 자존감의 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1, 3, 5, 11, 13, 21) - 자녀의 기초학습 부진이 염려스러우며 꼭 도움을 받고 싶음 (2, 6, 12, 13, 19, 20, 22, 23)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N=14)	부모 효능감 (N=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부모인가에 관한 혼란스러움 (7, 8, 10, 12, 15) 	부모로써 잘하고 있는지 확신 부족 (N=5)	

구성요소. 부모 효능감

연구대상자 중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느끼는 부모 효능감에 대한 욕구를 호소한 답변은 총 19건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사례 1, 2, 3, 5, 6, 11, 12, 13, 19, 20, 21, 22, 23)와 부모로써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경우(사례 7, 8, 10, 12, 15)로 나타났다.

(1)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자녀의 미래를 대비하여 교육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에서는 자녀가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 및 교육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사례 1, 3, 5, 11, 13, 21)와 자녀의 기초학습 부진이 염려스러우면 꼭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사례 2, 6, 12, 13, 19, 20, 22, 23)로 나타났다.

둘째는 음악을 하는데 학원을 보내기엔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첫째도 단과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걱정스럽죠.(사례 1)

아이들은 공부도 잘 하고 욕심이 있는 편인데 학원을 보내줄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사례 3)

둘째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높고 반장이예요. 학구열이 높다고 해야되나... 중학교 입학하기 전 부족한 수학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부담이 되죠.(사례 5)

수학과목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해요. 그 외 다른 과목들은 잘하지는 않는데 욕심이 있어요. 제가 못따라줘서 그렇지...(사례 11)

첫째랑 둘째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 더는 축구는 못시키죠. 하고싶어하는데...(사례 13)

아이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공부 계속 하고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과외선생님 이라도 붙여주고는 싶은데...(사례 21)

학습적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죠.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못따라가면 앞으로는 계속 못따라갈텐데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사례 2)

경제적인 상황으로 사교육 지원은 전혀... 아이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사례 6)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ADHD였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죠. 그런걸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죠.(사례 12)

첫째랑 둘째가 운동을 하다보니 기초학습이 많이 부족해요. 선수가 될 때까지 시킬 형편이 안되니까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할텐데 걱정이 많죠.(사례 13)

소득이 안되니 아이한테 따로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그런건 못하죠. 맘이 쓰이고 공부에 흥미를 잃으니까봐 그게 제일 고민이 되요.(사례 19)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이죠. 첫째가 특히 시급하기는 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죠.(사례 20)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학원이나 이런건 전혀 안다니고 있어요.(사례 22)

기초학업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잘하지는 못해도 중간은 가주면 좋겠는데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말이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사례 23)

(2) 부모로써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부족

부모로써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에서는 혼자서 나름 부모역할에 대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부모인가에 관하여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는 경우(사례 7, 8, 10, 12, 15)로 나타났다.

한부모로써 이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건데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사례 7)

한부모로써 자녀를 혼자힘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사례 8)

아이가 상담을 받을 때 부모상담도 같이 조금씩 받는데 부모의 문제임을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어요. 저도 이혼가정이다보니 자녀양육을 잘 하고 있는건지 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요.(사례 10)

수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사례 12)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감당을 할수 있을지 사실 그게 제일 스트레스죠.(사례 15)

부모효능감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자녀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자녀의 기초학습 부진이 염려스러운 경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좋은 부모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 ‘부모로써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하지 못한다는 응답에서 자녀교육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의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의 욕구에서 분류된 구성요소가 부모효능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부모가족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것보다 자녀 양육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단계 : 자존감의 욕구 연구결과 요약

해당 단계에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호소욕구로 부모효능감이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고 또 부모로써 잘 하고 있는가에 관한 확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학습지원을 받거나 혹은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자존감 회복 및 자녀 양육 및 돌봄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인지적 욕구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인지적 욕구를 호소하는 가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고 응답한 한부모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Maslow는 욕구단계이론에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Maslow, 1943). 따라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4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결핍욕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5단계 이상의 성장욕구를 호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6) 심미적 욕구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심미적 욕구를 호소하는 가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환경과 문화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역시 인지적 욕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자아실현 욕구

[표-13] 자아실현 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음 (12, 15, 19)	자립을 위한 나의 역량 증진 (N=3)	자립 (N=3)
- 나와 자녀가 잘 기능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음 (2, 6, 13, 17, 23) - 한부모로 당당하게 아이 잘 양육하면서 살아나가기 (1, 3, 4, 8, 9, 10, 12, 21)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 희망 (N=13)	성장 (N=13)
- 엄마가 아닌 나로 행복을 찾고 싶음 (5, 18) -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고 싶음 (2, 5, 6, 13, 20)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음 (N=7)	행복 (N=7)

구성요소1. 자립

연구대상자 중 자립을 위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건으로 자립을 위한 역량 증진을 하고 싶은 경우(사례 12, 15, 19)로 나타났다.

(1) 자립을 위한 나의 역량 증진

자립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에 대한 역량을 증진하고 싶다는 답변으로는 언젠가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은 경우(사례 8)와 자립을 통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경우(사례 12, 15, 19)로 나타났다.

수급을 탈피를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가 되어야죠.(사례 12)

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아이한테도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거 같은 생각도 들고...(사례 15)

수급은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제일 우선은 그거...(사례 19)

자립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경우 ‘자립을 위한 나의 역량 증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2. 성장

연구대상자 중 성장을 위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13건으로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고 싶은 경우(사례 1, 2, 3, 4, 6, 8, 9, 10, 12, 17, 21, 23)로 나타났다.

(1)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을 희망

지금보다 성장하여 건강한 가족이 되고싶다고 희망한 답변으로는 나와 자녀 모두 잘 기능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경우(사례 2, 6, 13, 17, 23)와 한부모로써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사례 1, 3, 4, 8, 9, 10, 12, 21)로 나타났다.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다 자기역할 잘 해서 아이들은 지원같은거 안받고도 살 수 있게 그렇게 커주면 제일 좋죠. 저도 그렇고요.(사례 2)

아이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제가 만들어야죠. 잘만 자라주면 좋겠어요.(사례 6)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거 하고 먹고 싶은거 먹고 그렇게 남들처럼은 클 수 있도록 해야죠.(사례 13)

아이가 건강하게만 잘 커주면 좋을 거 같아요. 몸도 정신도...(사례 17)

세 아이만 잘 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리고 그렇게만요.(사례 23)

당당하게 한부모라도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 보여주고 싶죠.(사례 1)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거죠. 혼자도 잘 할 수 있고 잘했다, 그런 말...(사례 3)

건강하게, 당당하게 그래 나 한부모다 잘 살고 싶죠.(사례 4)

한부모가족이라도 자녀 잘 키웠다! 하면서 지내고 싶은거죠.(사례 8)

한부모라도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사례 9)

한부모? 그게 왜? 나 혼자서도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말...(사례 10)

아이들과 함께 한부모라도 건강하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사례 12)

아이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사례 21)

성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나와 자녀가 잘 기능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거나 한부모로써 당당하게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살아나가고 싶은 경우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이 가족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과 관계없이 당당하고 잘 기능하는 구성원이 되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소3. 행복

연구대상자 중 행복을 위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7건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경우(사례2, 5, 6, 13, 18, 20)로 나타났다.

(1)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 답변으로는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경우(사례 5, 18)와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경우(사례 2, 5, 6, 13, 20)로 나타났다.

엄마라서 해야돼 이런거 말고 그냥 내 내면의 건강함을 다시 되찾는거죠.(사례 5)

하고 싶은게 많아요.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거 말고 헬스, 쇼핑, 데이트, 여행, 친구들 만나고 싶고 요가도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게 많아요.(사례 18)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는거 같기는 해요. 아이들도 점점 크고 있으니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거...(사례 2)

지금은 힘에 부치지만 점점 나아질거예요. 제가 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이 더 많겠죠.(사례 5)

다른건 없죠. 저, 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냥 지금 열심히 하는거죠.(사례 6)

한부모 두부모 안가르고 그냥 우리 행복한 가족이다 보여주고 싶어요.(사례 13)

목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거죠.(사례 20)

행복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엄마가 아닌 나로의 행복을 찾고 싶거나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경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주관적 개념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단어이다.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행복이라는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한부모가족은 미래에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싶은 희망이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 7단계 : 자아실현 욕구 연구결과 요약

자립을 위한 스스로의 역량 증진과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자아실현의 욕구 중 하나가 자립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욕구단계에서 ‘성장’과 ‘행복’이라는 주관적 기준의 욕구가 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미처 구체화 되거나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기 전단계로 이상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 자기초월 욕구

[표-14] 자기초월 욕구 범주화

의미 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 도움받는 사람 아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음 (8)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N=1)	봉사 (N=1)

구성요소. 봉사

연구대상자 중 봉사를 위한 욕구를 표현한 답변은 1건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경우(사례 8)로 나타났다.

(1)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답변으로는 언젠가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경우(사례 8)로 나타났다.

저도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저도 스스로 안정도 찾게 되고 하면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사례 8)

봉사에 대한 하위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도움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났다. 응답한 인원은 전체 연구 참여자 중 단 1명으로, 자기초월의 욕구까지 호소하는 한부모가족은 흔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8단계 : 자기초월 욕구 연구결과 요약

자기초월 욕구에서 구성요소는 봉사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은 도움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언젠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욕구로,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을 받은 자원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회와 가족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에서 해당 결과에 대한 응답을 한 연구 참여자는 단 1명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한부모가족이 의식주와 자녀돌봄 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심화된 욕구를 호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결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Maslow의 8단계 욕구단계이론(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욕구, 자존감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기초월 욕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호소한 욕구의 87.5%가 Maslow 8단계 욕구단계이론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결핍욕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절대적 결핍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욕구를 호소하는 경우는 12.5%로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상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미루어보아 대다수의 한부모가족의 삶이 행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삶이 아닌 살아나가는 데 기초가 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자원을 동원하여 결핍을 채우는 물질적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부모가족 스스로가 삶의 동기와 가치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잘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역량강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자가정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단계에서 자녀와 관련된 욕구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서 한부모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여성 한부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 스스로 근로를 하며 경제적, 주거환경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및 소속감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쉽게 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자존감 지원체계와 더불어 부모이자 한 개인으로써 자립하고 보다 성장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실현 탐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 구성요소의 코딩값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1순위 경제 및 근로 활동(N=44), 2순위 자녀돌봄(N=40), 3순위 사회적관계(N=21)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이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구성요소들로 경제적 측면 자녀돌봄의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 증가추세가 2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그러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 한부모 스스로의 위축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례관리 효과성

1) 사례관리 개입

[표-15] 연구 참여자의 사례관리 개입 결과

(N=23)

구분(평균)		빈도수(단위:명)	구성비율(단위:%)
사례관리 기간 (21.3개월)	12개월 미만	1	4.3
	12~18개월 미만	1	4.3
	18~24개월 미만	10	43.5
	24개월 이상	11	47.9
사례관리 개입계획 (100.74건)	100건 미만	15	65.2
	100~200건 미만	7	30.5
	200건 이상	1	4.3
사례관리 개입이행 (133.87건)	100건 미만	8	34.7
	100~200건 미만	11	47.9
	200건 이상	4	17.4
사례관리 목표 달성률 (134.93%)	100% 미만	2	8.7
	100~120% 미만	6	26.0
	120~140% 미만	6	26.0
	140% 이상	9	39.3
사례관리 만족도 (46.96점)	40점 미만	2	8.7
	40~50점 미만	5	21.7
	50점 이상	16	69.6

사례관리 평균 진행 기간은 21.3개월로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서 기본 사례관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연구참여자 중 절반이 사례관리 개입 최장기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후 종결을 한 가정은 2가정으로 여성가족부 지침 기본 규정의 1년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기에 짧은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면담 인테이크 시 1회,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사정을 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은 평균 100.74건, 종결기록지에 명시된 사례관리 서비스 이행 건수는 평균 133.87건으로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은 134.93%로 나타났다. 종결 면담 시 진행하는 사례관리 만족도조사 검사 결과는 50점 만점의 척도문항으로 평균 46.96점으로 다수의 사례관리 참여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높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연구 참여자의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

(N=2,919)

구분		빈도수(단위:건)	구성비율(단위:%)
제공 서비스	법률 및 의료지원	43	1.4
	자녀돌봄지원	47	1.6
	주거환경지원	53	1.8
	취업 훈련/교육지원	68	2.3
	가족프로그램 지원	230	7.9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279	9.6
	상담 및 교육지원	310	10.6
	경제적지원	463	15.9
	자녀학습지원	671	23.0
	지역자원 정보제공	755	25.9
지원기관	종교시설	21	0.7
	의료기관	30	1.0
	고용근로기관	62	2.1
	상담 및 교육기관	121	4.1
	공공기관	90	3.1
	사회복지시설	230	7.9
	기업·기관·개인 후원	273	9.4
	가족센터	2,092	71.7
서비스 유형	일회성	216	7.4
	단기지원	234	8.0
	장기지원	2,469	84.6

자녀학습, 경제, 상담 및 교육지원 등 직접 서비스가 전체의 74.1%,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25.9%로 나타났다. 가족프로그램,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상담 및 교육, 자녀학습지원은 사업비를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지원이 직접지원 서비스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15.9%를 차지한다. 이는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 발굴 및 연계의 측면이 부각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원기관을 살펴보면 가족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가 71.7%, 타 기관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서비스가 29.3%로 전체 지원의 약 30%가 타기관의 자원을 동원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적 차원의 인적 및 물적자원 동원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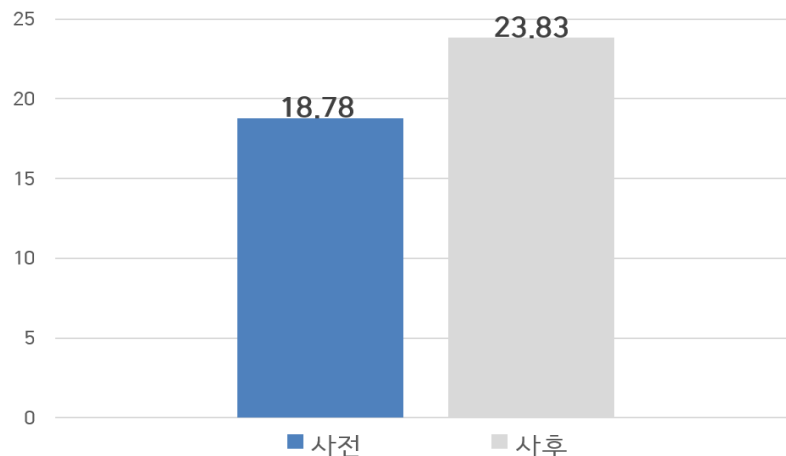
2) 자기효능감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검사의 사전 및 사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17]과 같으며, 사례관리 개입 전후 자기효능감 평균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9]과 같다.

[표-17]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8.78	3.450	23.83	3.228

[그림-9]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평균변화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검사 결과 사전검사 평균 점수는 18.78점, 사후검사 평균 점수는 23.83점으로 사례관리 개입 후 자기효능감 점수가 평균 5.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서비스 개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18]에 의하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보다 높은 한부모(음의 순위)는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 전원이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높은 것으로(양의 순위)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z값은 -4.206, 유의확률은 .000으로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비교 :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음의 순위			양의 순위			z
평균 순위	순위 합	사례 수	평균 순위	순위 합	사례 수	
0.00	0	0	12.00	276.00	23	-4.20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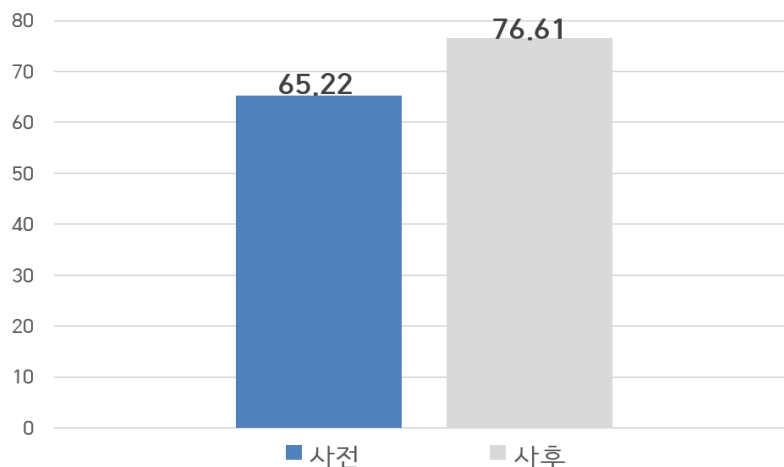
3) 가족기능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족기능 척도검사의 사전 및 사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19]와 같으며, 사례관리 개입 전후 가족기능 평균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10]와 같다.

[표-19]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5.22	10.800	76.61	11.126

[그림-10]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평균변화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족기능 척도검사 결과 사전검사 평균 점수는 65.22점, 사후검사 평균 점수는 76.61점으로 사례관리 개입 후 가족기능 점수가 평균 11.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서비스 개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

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20]에 의하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보다 높은 한부모(음의 순위)는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 전원이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높은 것으로(양의 순위) 나타났다. 가족기능 z값은-4.201, 유의확률은 .000으로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가족기능 사전·사후점수 비교 :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음의 순위			양의 순위			z
평균 순위	순위 합	사례 수	평균 순위	순위 합	사례 수	
0.00	0	0	12.00	276.00	23	-4.201***

* $p < .05$, ** $p < .01$, *** $p < .001$

■ 가족사례관리 효과성 연구결과 요약

가족사례관리 개입사항을 살펴보면 평균 사례관리 기간 21.6개월, 계획 대비 서비스 이행 달성률은 약 135%, 사례관리 서비스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46.96점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서비스에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정보제공, 자녀학습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가족프로그램 지원의 영역이 전체의 76.9%로 나타났다. 경제적지원, 취업훈련 및 교육지원, 주거환경지원, 자녀돌봄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은 전체의 23.1%로 연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지원기관을 살펴보면 가족센터 직접지원이 71.5%, 타 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한 경우가 28.5%로 가족사례관리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사업 내부의 방향성 점검과 더불어 가족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사례관리 개입 전/후에 동일한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 평균 18.78점에서 사후검사 평균 23.83점으로 평균 5.05점 상승하였으며, 가족기능은 사전검사 평균 65.22점에서 사후검사 평균 76.61점으로 평균 11.39점이 상승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혼합연구 중 탐색적 순차설계의 절차에 따라 가족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부모 모자가족의 욕구를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을 토대로 내용 분석하고 이후 사례관리 개입 내역과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지검사를 사례관리 개입 전/후에 각각 실시하여 가족사례관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 제공과 한부모가족 정책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추후 방향성 제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모자가족의 욕구들은 어떠한가?’와 ‘사례관리 개입 효과성은 어떠한가?’이며 사례관리 개입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관리 진행 내역, 자기효능감, 가족기능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U시 N구 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가족사례관리 대상자 총 156가정 중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3가정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이 호소한 욕구의 87.5%는 결핍욕구(생리적, 안전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 자존감)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욕구(인지적, 심미적, 자아실현, 자기초월)는 12.5%로 그나마도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계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수의 한부모가족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스스로의 삶의 동기와 가치를 탐색하거나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전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이 근로활동, 주거환경, 건강회복, 자녀돌봄,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영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경애(1999), 공선영(2000), 남희수(2009), 김영주·유병선(2010), 손서희(2013), 조희선·전보영(2013), 남궁성녀(2014), 한정원(2014), 김혜경 외(2015), 최영진(2021) 등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가 진행된 2021년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문제이지만 실제적인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복지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

하고, LH주택공사의 한부모가족 전세자금지원, 매입임대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창업 등 고용에 대한 지원 등의 결핍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의 실제적인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덜고, 동시에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활에 직면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및 비용 부담 절감,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예방 및 해결 방안 모색, 경력 단절 여성 대상 경력 잇기 개념의 자활근로 영역의 다양화, 일·가정 양립 및 워라벨을 강조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선 및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촉구되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개입은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사례관리 이용경험에 대해 연구한 이기연(2015)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1년에서 최대 2년에 걸쳐 제공되는 사례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에 경험하는 정서적 지지체계,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 참여는 부모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과정들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교류하고,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족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향상시켜 가족기능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한부모가 된지 10년 미만 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기가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족사례관리가 한부모가족이 형성되는 초기지원 발판으로 작동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발적 취약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혼이 진행되는 가정법원과 법정한부모 지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사회·경제·관계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한부모가족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 홍보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가족사례관리사는 초기 한부모가족에게 외적(물적) 역량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해결과 더불어 내적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삶의 목적과 동기를 찾아나갈 수 있는 자아실현적 존재로서 자리잡도록 도움을 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경제

적 어려움이 한부모가족의 다른 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례관리의 1차적 목적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임을 강조하는 사업 추진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새일센터, 자활센터 등 한부모의 근로 및 고용과 관련된 기관과의 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여 실제적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족사례관리에서 서비스제공의 23.1%, 기관연계의 28.5%가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욕구에서 경제적 및 근로활동의 욕구가 가장 크게 호소되었으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직접지원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가족사례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서 많은 연구자들의 가족사례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강기정·박수선, 2013; 정지영 외, 2015; 황점임 외 2015).

넷째, 우리 사회에 이혼과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가 대두된지 약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사회적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한부모 스스로의 위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한부모가족을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문제를 가진 사람, 부모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생활의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소속감과 애정 욕구의 심각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실제적 개선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지속적인 홍보, 감수성 증진 교육 등 적극적인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수집하기 어려웠던 한부모가족의 호소 욕구를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사이의 라포형성을 통하여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례관리 개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사례관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족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현실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질적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다양한 학문을 막론하고 흔히 사용되는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에서 한 단계 진화된 Maslow의 8단계 욕구이론을 소개하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혼합연구로 설계되어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사전/사후의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를 통하여 질적 및 양적접근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사례관리 개입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U시 N구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존재하고, 대표성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 연구 참여자는 23가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가족사례관리 개입 전후의 효과성을 양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기에는 표본의 양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국적 차원에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사례관리에 참여한 대상자의 욕구와 사례관리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관리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단지 사례관리 개입 후 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척도검사의 평균값이 향상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고, 평균값 상승에 기여한 사례관리의 요인에 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가정이 어떠한 요인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효과성을 인지하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탐색을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한부모가족이 가진 다수의 욕구가 결핍욕구에 머물러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가족의 욕구가 기본적인 삶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탐색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가족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박수선 (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39-61.
- 강기정, 박수선 (2013). 가족중심 사례관리의 지역사회 체계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25-144.
- 강기정, 이무영, 정은미 (201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149-171.
- 강육모 (2004). 한부모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127-153.
- 강지원 (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30-54.
-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 변화정도, 대처전략, 적응 및 복지요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애 (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1-30.
- 김도희 (2019).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 근거한 한국판 5욕구 만족도 척도 타당화 연구. 재활심리연구, 26(4), 77-97.
- 김승권 (201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2010 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 김승권, 김미숙, 윤상용, 김성희 (2010).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포럼, 166, 63-79.
- 김승권, 황성철, 김연우 (2013). 한국형 통합사례관리 모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 김연우 (2013).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0), 57-68.
- 김영숙, 임효연, 신소라 (2009), 사례관리자들의 실천 경험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89-122.
- 김영주, 유병선 (2010).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69-181.
- 김은정 (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3), 5-35.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 김정현 (2012).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38, 69-102.
- 김주수 (1982). 가족관계학. 진명출판사.
- 김재근 (2004)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주 (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13, 77-102.
-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홍달아기 (2015). 가족복지론. 공동체.
- 김혜연 (2014). 건강가정사 역량강화 코칭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가족과삶의 질학회, 32(1), 101-115.
- 김희정 (2003).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영, 옥선화 (2005). “20,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3), 199-219.
- 권진숙, 박지영 (2010). 『사례관리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 : 학지사.
- 남궁성녀 (2014). 저소득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희수 (200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희, 이대균 (2011).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 문은영, 전경옥 (2005). 일본의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통해 본 여성빈곤 : 여성 한부모 가구주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31-59.
- 박명선 (2006). 독일의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연구. 사회과학논총, 22, 85-109.
- 박복순 (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1(1), 41-73.
- 박정윤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정 관련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67-178.
- 박정윤, 박연숙, 전미경 (2019). 가족사례관리사업 운영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35-60.
- 박종원 (2020). 『NVivo R1』 . 글로벌콘텐츠.
- 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2011)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4(2), 199-209.

- 박진영 (2000). 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과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희 (1986). 가족은 유용한 분석단위인가. 가족학논집 3.
- 성미애, 진미정 (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1-28.
- 손서희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59-75.
- 송혜림, 박정윤, 진미정, 정지영 (2015).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가족원경영학회지, 19(1), 49-71.
- 신희정 (2013).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 지원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311-321.
- 심창학 (2003).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 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0), 125-154.
- 양호정, 윤귀선 (2017). 사례관리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에 대한 질적연구-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017년 추계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 109-112.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오명근, 이종수 (1989). 사회학. 서울: 대영사.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혼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영주 외 (2004). 새로운 가족학. 도서출판 신정
- 이경희, 유영달 (2006). 동거부모 형태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성과 심리적 안녕. 가족과 문화, 18(2), 115-138.
- 이기연, 박현정 (2015).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의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연구, 46(1), 59-83.
- 이영관, 지은구 (2017).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5-31.
- 이정희, 김영숙 (2017). 사례관리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의 경험 연구 - Giorgi 현상학적 연구 접근 -.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9(3), 65-96.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현철, 김영천, 김경식 (2013). 『통합연구방법론: 질적연구+양적연구』 .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임효연, 이사라 (2013). 가족복지실천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및 관계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75-95.

- 장재인 (2020). 욕구이론과 교회교육의 관계연구 - 매슬로우를 중심으로-. 장로회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김영란 (200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60, 174-197.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민자 (2014).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화를 통한 가족센터의 전달체계 구성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9-64.
- 정지영, 박정윤, 고선강, 이희운 (2015).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101-119.
- 정지영, 박정윤, 장진이 (2015). 가족사례관리 모델개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정순돌 (2005). 『사례관리실천의 이해: 한국적 경험』. 서울: 학지사.
- 정순돌, 조지혜, 신수정 (2015).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평가체계 및 평가 지표 변화분석.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2(2), 5-32.
- 정혜경 (2002). 단친가족의 가족구조 및 기능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선, 전보영 (2013). 생애사를 통해 본 이혼 한부모 여성가장의 삶과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79-207.
- 주정 (2014).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개편에 관해서. 젠더와문화, 7(2), 245-285.
- 진미정, 김은정 (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27), 163-189.
- 최경화 (202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혼합연구방법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선 외 (2007).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75-95.
- 최새은, 김미영, 손서희 (2020).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통합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 혼합방법론 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38(3), 99-116.
- 최연실 (2005).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0, 1-15.
- 최영진 (202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법학연구, 29(2), 27-48.
- 최지선 (2012).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

- 지조사연구, 33, 229-264.
- 최현숙 (2004). 결혼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 통계청 (2020). 장래가구추계.
- 한은주 (2021).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현장 적용 논의 -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16-126.
- 한정원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한부모가족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159-195.
- 현은민 (2007). 한부모가족의 적응-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07-126.
- 현은민 (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홍지은 (2018). 스포츠에 투영된 젠더 고정관념: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혼합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숙 (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 황정임, 정가원, 김유나, 이호택 (2015).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재경 (2021).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경험과 의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raham H. Maslow (1992). Motivation and Personality,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서울: 교육과학사.
- Arditte, K. A., Morabito, D. M., Shaw, A. M., & Timpano, K. R (2016). Interpersonal risk for suicide in social anxiety: the roles of shame and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39, 139-14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1998).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H. Freeman and Company.
- Bryman, A.(2006).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how is it

- done?. *Qualitative research*, 6(1), 97-113.
- Creswell. J. W.(2017). 『(알기쉬운) 혼합연구방법』 . 김동렬 역. 서울;학지사.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8).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https://doi.org/10.1111/j.1753-6405.2007.00096.x>
- Edwin A. Locke, Gary P. Latham. (1990). “Work Motivation and Satisfaction: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240-246.
- Friedman, A. S. Utad, A, & Morrissy, N. R. (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both. *Family Process*, 25, 131-148.
- Friedman, M.M., Bowden, Y.R., & Jones, E.G. (2003). *Family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Gavriel Salomon. (1984). “Media’s Effects on Children’s Thinking Patterns”, *Taylor & Francis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21(4), 2-7.
- Green, R. G., Kolenzon, M., & Vosler, N. R. (1985). The behavio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f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King, R., Bas, J. L., and Spooner, D., (2000). “The impact of caseload on the personal efficacy of mental health case managers”, *Psychiatric Services*, 51(3): 364-368.
- King, G., & Meyer, K. (2006). Servic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A framework of approaches for the delivery of co-ordinated car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2(4), 477-492. <https://doi.org/10.1111/j.1365-2214.2006.00610.x>
- Lisbeth T. Pike (2003). The Adjustment of Australian Children Growing up in Single-Parent Families as Measured by Their Competence and Self-Esteem. *Childhood*, 10(2), 181-200.
- Maddux, J. E.(1995), “Self-efficacy Theory: An Introduction”, In J. E. Maddux (Ed.), *The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pp. 3-33), New York, NY, US: Plenum Press.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No. 4:370-396.
- Maslow, Abraham H (2010).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소슬기 역. 『매슬로의 동기이론』 . 서울: 유엑스리뷰.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rdock, G. P.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 NASW (2013). 『NASW Standards for Social Work Case Management』 .
- Nieuwenhuis, R., & Maldonado, N. C. (2018). *The triple bind of single-parent families*. Policy Press.
- Olson, D.H., Russell, C. & Sprenkle, D.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rit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6, 3-28.
-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CES- (Family III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St. Paul, MN: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dgett, K.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유태균(역)(200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경기:나남.
- Teddlie, C., & Tashakkori, A. (2015). *통합방법 연구의 기초: 사회·행동과학에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통합*. 강현석·김경식·박창언·백상수·조영남·주동범·황윤세 역. 과주: 아카데미프레스.(원서 2005년 출판)
- Schmidt, A. M., and DeShon, R. P. (2010),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formance Ambigu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3), 572-581.
- Schunk, D.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 48-58.
-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 부록 1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부록 2 : 서비스 이용 동의서
- 부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부록 4 : 종합정보 기록지
- 부록 5 : 욕구강점 사정지
- 부록 6 : 자기효능감 척도
- 부록 7 : 가족기능 척도
- 부록 8 : 종결기록지

[부록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서비스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성별	남 / 여
		연 락 처	자택 : / 핸드폰 :			
	주 소					
	생년월일			직업		
인적사항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연령)	직업	비고 * 해당 시 기재
				(세)		
				(세)		
				(세)		
				(세)		
신청사유						
서비스 신청경로		<input type="checkbox"/> 기관내부의뢰 <input type="checkbox"/> 타건가센터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input type="checkbox"/> 고용·복지기관 <input type="checkbox"/> 교육관련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관련기관 <input type="checkbox"/> 주변인 소개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통해 직접 <input type="checkbox"/> 기타()				
<p>본인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p>						

서비스 이용 동의서

본인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 및 가족의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 및 가족의 정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린다.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가정)방문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는 초기면담 시 약속한 서비스 외 금품 등 선물요구, 개인용무 시 동행요구 등 서비스 관련 이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서비스 이용자는 외출 시 현금 등의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업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만약 집안의 물건 등이 분실 및 도난을 당하였을 때는 즉시 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및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례관리 담당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연락두절, 개인사정 변경(건강상의 문제, 이사, 서비스 제공 나이 변경, 가족형태의 변경 등)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원 연계 시, 필요할 경우 협력기관과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정책분석,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년 월 일

서비스 이용자 : (인)

담당자 : (인)

[부록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력관리

2) 수집 항목 * 상황에 맞게 내용 변경

- 신청자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업, 주거사항 등
- 가족정보-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등

3) 보유·이용 기간

- 문서 관리 : 신청기간
- 가족지원통합시스템 관리 : 준영구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관계	

3.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1) 제공받는자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
*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력관리
- 3)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가족관계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준영구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동의거부 권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부록 4]

종합정보 기록지

등록번호			담당자							
등록기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작성일	년	월 일					
정보제공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결혼상태	동거여부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명	질병명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질병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모자가구 <input type="checkbox"/> 부자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모부자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일반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100% 이하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형태	환경	<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월세)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난방	<input type="checkbox"/> 기름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 <input type="checkbox"/> LP가스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제상황	가계소득	<input type="checkbox"/> 월 평균 ()만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약 ()만원	총재산 ()만원					
	소득원	<input type="checkbox"/> 연금 <input type="checkbox"/> 공공부조 <input type="checkbox"/> 저축 <input type="checkbox"/> 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수입(주소득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부록 5]

육구강점 사정지

대상자	등록번호	담당자	작성일	20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영역	대상자 인식	담당자 평가						
		현 상황	강점/장애 물사정	육구평가	심각도	수행방법		
1. 안전영역 : 학대나 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확보								
2. 기초생활영역 : 긴급생계지원 (긴급한 의료, 주거, 냉난방비,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경제영역 : 경제수준개선 (장기적인 소득향상방안, 부채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4. 신체건강영역 : 내담자나 가족구성원의 신체건강문제 해결/치료								
5. 정신건강영역 : 내담자나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정신 건강문제해결/치료								
6. 가족관계영역 : 가족관계개선 (갈등, 관계 소원 등)								
7. 가족돌봄영역 : 가족구성원 중 장애/간병 등 돌봄부담의 완화								
8. 자녀교육영역 : 내담자의 (손) 자녀양육, 교육문제해결 (관계, 교육방법, 교육비용, 자녀의 특정 문제 관련)								
9. 일상생활영역 : 일상생활유지 및 일상생활기능 강화, 여가활용기능 강화 및 기회 확대								
10. 사회적관계영역 : 내담자나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관계 개선/ 지지체계형성								
11. 주거환경영역 :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물리적 환경중심)								
12. 직업, 고용영역, 내담자나 가구주의 직업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고용지원								
13. 기타								
대상자의 삶의 비전 및 목표			강점		장애물			
담당자 종합의견								

[부록 6]

자기효능감 척도(□사전, □사후)

성명		등록번호	
----	--	------	--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총점으로 계산

**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 혹은 성취감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부록 7]

가족기능 척도(□사전, □사후)

성명		등록번호	
----	--	------	--

가족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가족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진심을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 같이 화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보다는 제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의견차이가 있어도 서로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가족 규칙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3	우리 가족은 개개인이 무엇을 하든지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의도는 좋겠지만 서로간의 간섭이 심한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5	우리 가족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한번 결정한 사안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9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20	우리 가족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음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21	우리 가족은 일에 있어서 계획과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 * 총점으로 계산
- **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기능적인 것을 의미함

[부록 8]

종결기록지

대상자		등록번호	
담당자		작성일	
종결유형	<input type="checkbox"/> 목표달성 후 종결 <input type="checkbox"/> 중도탈락 (<input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거부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자격변동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기타())		
종결처리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의뢰(의뢰기관/담당자 :) <input type="checkbox"/> 접촉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례요약	제공된 서비스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횟수
성과목표 달성내용	성과목표		달성내용
담당자 의견			
사후관리 계획			

Abstract

An Analysis on the Needs of Single-Parent Family and the Effectiveness of Family Case Work : Focused on Recipients of Family Empowerment Services

Lee Sujeong

Supervisor : Professor Jung Minja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ingle-parent family, one of the many different types of families appearing in Korea, has increased by two to three times in 30 years since 1990. Some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may adapt themselves positively to life through a strength like adaptability to school or independence. However, they should resolve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the burden for the role in which the father or mother should deal well alone with child-rearing and working activities, which are the basic functions of the family. The present actual survey of single-parent families only examined the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living, but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collect data related to the needs of which single-parent families complain.

Thus,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needs of which single-parent families complained, who experienced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as the recipients of family case management, conducted at a family center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e management.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vision of empirical basic data and policy for single-parent families so that single-parent families could serve as the resources of a healthy society. In addition, through family case management effectiveness analysis, this study woul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and utilize them as the baseline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for single-parent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research questions, "What would be the needs of single-parent families?" "What would be the effectiveness of case management interventions?" 23 families that were judged to be appropriate for the study were selected of 156 families that were the recipients of the family case management of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at a family center in N.

District, U. City from January 2018 through December 2019. Then, with the exploratory sequential design method of the mixed research methods, the needs of which the study subjects complained were classified based on Maslow's theory of 8-level hierarchy of needs to conduct a content analysis. In addition, the details of the case management interventions,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and the results of the family functioning scale tes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87.5% of the needs of which they complained remained deficient needs (physiological, safety, belonging and affection, self-esteem), and 12.5% were growth needs (cognitive, aesthetic, self-actualization, self-transcendence), which were still not concrete. As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hich are in progress, interventions for resolving deficiency needs such as income guarantee, housing support, and employment support are provided in priority; however, they are still insufficient. For the relief of economic needs that appeared to be the biggest difficulty,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preferential connection to a babysitter and diversify the self-support work area in the concept of connecting careers for women whose career has been discontinu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emphasizing the work-family balance and work-life balance, improve policies extensively like bridging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call upon sustainable social interest.

Second, it turned out that family case management service intervention in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was effective in the aspects of self-efficacy and family function. In particular, family case management should be the platform for initial support when single-parent families are formed and should be in the direction for supporting them to lead healthy and happy families through self-reliance not staying in the voluntary vulnerable class. Thus, the case manager should play the role in helping single-parent families lead lives as self-fulfilling beings, resolving challenges to improve external (physical) capabilities for them and drawing the improvement of internal capabilities.

Third, since their representative needs complained of, economic and labor activity, are in an area that cannot directly be supported by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at the family center,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plan for the enhancement of the case management network.

Fourth, despite it has been more than about 20 years since there was a tendency of increase in divorces and single-parent families in our society for the first time, it turned out that single parents were still intimidated themselves due

to prejudice against single-parent families and restrictions on social activity. This shows that active policy reflection is needed, e.g., campaign or ongoing promotion for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single-parent families, and sensitivity enhancement education.

This study could conduct a more realistic interview and approach to the needs of which single-parent families complained, which was difficult to collect in the actual survey of single-parent families, through rapport building between the case manager and subjects. In addition, this study has value as a material introducing Maslow's theory of the 8-level hierarchy of needs and a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make a multi-faceted approach to the effectiveness of family case management through the mixed study design.

Key Words: Single-parent family, Maslow, Family center, Case Work, Family empowerment service